부산 속 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부산의 뒷골목에 잊혀져가는
역사성 있는 지역이나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도보여행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사)서비스기업경영포럼

부산 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부산의 뒷골목에 잊혀져가는
역사성 있는 지역이나
문화재를 찾아 떠나는 도보여행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사)서비스기업경영포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동안 부산을 걸었다.
그중에는 전날까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걱정했던 날도 있었다. 셋째 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신기하게도 하늘은 대개 어김없이 개었다. 부산 속 들여다보기의 '속속들이 부산투어'가 열리는 날이었다.

많이 알려진 관광지가 아니라 좁은 골목을 들여다보는 이방인들을 보고 주민들은 궁금해서 "어디서 왔습니까?"라고 물었다. 우리는 당연히 "부산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당연히 "여기도 부산인데예."라고 말해 같이 웃었다. 그동안 우리는 태어나서 자란 부산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부산 서구 답사를 하며 부산도시철도 토성역 근처를 지날 때였다. 해설사의 설명으로 외롭게 서 있던 토성 터 표지판을 비로소 주목했다. 거기에는 '토성동이 삼국 시대 또는 조선 시대의 토성이 있던 곳이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부산에 살면서도 그 전에는 한 번도 토성동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그 토성이 제대로 연구도 하기 전에 개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언제 만들어진 토성인지 영영 알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기장군 답사를 할 때도 신라 시대의 토성을 만났다. 막연히 신라 토성이라고만 알려졌지 이름도 모르고 언제 축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가 지은 토성은 연구가 없어 이름도 없는데 근처의 왜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본에서 학자들이 이곳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뒷맛이 참 씁쓸했다.

동구 답사 때 지금은 이름이 문화공감 수정으로 바뀐 정란각의 다다미방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니 꼭 일본에 온 느낌이 들었다. 일제강점기 부산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발간된 신문에 따르면 부산 시내 일인 가옥은 무려 1만 4000호에 이르렀다. 광복 후 일본인이 물러가며 남겨 놓고 간 주택을 적산가옥(敵産家屋)이라고 일컫는다. 적산가옥은 당시 일본인의 안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산 광복동, 동광동, 부평동, 신창동, 대교동, 충무동, 보수동에 많았다. 하지만 적산가옥은 세월이 지나며 거의 사라졌다. 남아 있는 적산가옥도 지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형을 많이 잃었다. '부속들'은 적산가옥에도 주목했다. 적산가옥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다시 찾은 재산이자 일제 강점을 입증하는 네거티브 헤리티지(부정적 유산)로 건축과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개항 도시이자 6 · 25 임시수도였던 부산에는 참으로 다양한 근대문화 유적이 산재해 있었다. 이 다양한 인문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고 상품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웠다. 근대문화유적을 중심으로 관광코스를 개발해 새로운 관광 상품화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였다.

'부속들'은 지금까지 지역성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공정여행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뚜벅뚜벅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이다.

길은 다 통하니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CONTENTS
목차

01 **강서구** 다크투어길 009

02 **금정구** 금샘길 019

03 **기장군** 성터해안길 029

04 **남구** 화해길 039

05 **동구** 이바구길 051

06 **동래구** 향교읍성길 063

07 **부산진구** 옛경제동맥길 073

08 **북구** 국시길 083

09 **사상구** 강선대길 093

10 **사하구** 임진왜란길 103

11 **서구** 비석길 113

12 **수영구** 좌수영길 125

13 **연제구** 거칠산국길 137

14 **영도구** 흰여울길 147

15 **중구** 근대역사길 157

16 **해운대구** 온천길 169

Part 1

강서구

다크투어길

가덕도 대항마을 ··· 외양포 마을 ··· 막사 ···
우물 ··· 장교사저 ··· 적산가옥 ··· 포진지 ···
가덕도 대항마을

부산 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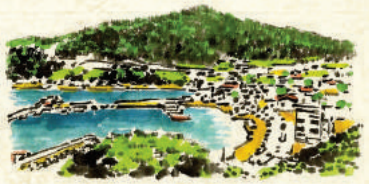
강서구

다크투어길

강서구는 유서 깊은 가야문명의 발상지이며, 낙동강 하구와 김해평야, 철새도래지, 부산항신항, 가덕도가 있는 곳이다. 특히 가덕도는 보개산이 바다 가운데 침몰되었다가 다시 솟아서 이루어 졌다는 전설이 있는 부산 최대의 섬으로 최고봉인 연대산(459.4m) 등 수많은 산들이 펼쳐져 있으며, 일제시대에 왜군이 외양포에 만든 군사기지와 인공동굴 등 아픈 역사의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다.

코스약식설명

1.가덕도 대항마을 — (1,300m, 도보 26분) — 2.외양포 마을 — (140m, 도보 3분) — 3.막사 — (30m, 도보 1분) — 4.우물 — (50m, 도보 1분) — 5.장교사저 — (70m, 도보 2분) — 6.적산가옥 — (50m, 도보 1분) — 7.포진지 — (1,300m, 도보 26분) — 8.가덕도 대항마을



1. 가덕도 대항마을

대항리에는 응달, 양달마을과 새바지(등받이) 마을, 외양포 마을이 있으며, 천성리에서 천성고개를 너머 동쪽에 연대봉 기슭과 남쪽의 국수봉 기슭이 잘룩하게 이어지는 곳에 대항마을이 자리잡고 있음.

2. 외양포 마을

대항 본동에서 동쪽으로 1km지점에 언덕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바지 마을이 나오는데 새바람을 받는다고 해서 새바지가 됨. 이 새바지에서 고개를 넘으면 외양포가 나오는데 옛날 포구로서 나룻배가 닿는 곳임. 이 포구는 대항의 바깥쪽 목(項)의 형태로 외항포였을 것이나 현재 외양포로 부름. 외양포는 일제해군이 점령한 곳으로, 제국주의 군사유적들이 110년 동안 방치됨.

3. 막사

외양포 선착장에서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자리한 건물. 100여년 전 외양포는 마을 전체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으로 뭍으로 향한 진해만과 대한해협 사이에 자리 한 가덕도의 위치를 살려 일본군은 이곳을 대륙 침략의 전초기지로 삼음. 이곳에 주둔했을 당시 헌병대 막사였던 건물에 지금은 매점이 들어섬. 지금도 마을 주민 30여 세대가 일본군 막사와 사저 등에서 살고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건물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았으며, 한 마을 전체가 군사 요새화된 곳으로, 100년 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

4. 우물

포진지에서 내려오면 마을 곳곳에서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일제당시의 우물터 네댓 개를 볼 수 있음. 우물은 붉은 벽돌로 마감돼 있는 우물대와 지붕 구조물로 에워싸여 있어, 한 눈에 봐도 한국과 다른 일본 건축양식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음. 최근까지 이 우물은 마을에 살고 있는 30여 가구의 외양포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었음.

5. 장교사저

가덕도는 일제강점기에 섬 전체가 일본군의 군사기지였음.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대항마을 외양포가 대표적.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외양포 주민을 몰아내고 진해만 요새 사령부를 세웠음. 현재 외양포에는 일본군 막사, 장교 사저, 탄약고, 감옥, 우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음. 포진지와 지하벙커도 100여년 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

6. 적산가옥

나무에 기름을 먹여 집을 올리고 지붕은 일본식 기와로 창문으로 햇볕과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눈썹지붕양식임. 당시 건물의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 중 하나임.

7. 포진지

포진지는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게 설계 구축되었으며, 육로는 물론 해로 어느 곳에서라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음. 크기는 1천 400㎡(약 420평) 정도로 토성을 쌓듯 제방을 5~6m 높이로 돌아가며 쌓아올려 얼핏 보면 마을 뒤 조그마한 언덕쯤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숨어 있는 요새' 그 자체임.

"부산시에 속한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영도라고 대답하는 분이 꽤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답은 가덕도로 영도보다 1.6배나 크다.
2010년 가덕대교와 거가대교가 연이어 개통되면서 가덕도는 일순간 섬에서 육지로 바뀌었다.
내륙과 섬을 잇던 도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시내버스가 천성까지 들어간다.
날씨 좋은 가을날 섬인 듯 섬이 아닌 가덕도로 향했다.

#01

일제 강점기에 정지된 듯한 모습

● 부산의 최남단으로 '부산의 마지막 마을'인 대항마을에서 '속속들이 부산투어'가 출발했다. 대항마을하면 이것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매년 3~5월에 하는 '육수장망'이라고 불리는 가덕도 전통 어로법인 재래식 숭어잡이다. 기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이 고기잡이는 백수십 년 전부터 전해온다.

여섯 척의 배가 장막을 치듯 바닷속에 그물을 깔아놓고 기다리면, 산에서 고기들의 움직임을 살피던 어로장이 신호를 보낸다. "조지라!" 그러면 일제히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설명을 듣고 바다를 보니 숭어 잡는 모습이 눈에 그려진다.

● 가덕도 선창에서 40~50분 거리인 외양포 마을에는 100여 년 전 일본군 제4사단 '진해만 요새 사령부'가 주둔했다. 마을 뒤 언덕에는 포진지의 흔적과 그 시절 일본군 막사 건물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외양포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지되어 있는 마을로 보인다.

1904년 일본군은 외양포 주민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이곳에 러시아 발트함대와의 격전을 대비한 포대 사령부를 주둔시키기 위해서였다.

양천 허씨 집성촌이었던 마을의 주민들이 고향을 버릴 수 없어 떠나기를 거부하자, 집과 세간을 불태우고 총과 칼로 위협을 가하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포진지 요새가 구축되고, 군 막사와 무기창고, 우물과 수리시설이 완료되면서 1905년 외양포는 '진해만 요새 사령부'의 주둔지가 된다. 고사포 진지를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한국인 노역자를 강제동원하기도 했단다.

● 외부에서 쉽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포진지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사령부발상지지(司令部發祥之地)'라는 내용의 요새 사령부 건립비가 서 있다. 오른쪽으로 포 2대씩을 설치할 수 있는 발사대 터 3곳. 탄약고 2동이 보인다. 왼쪽으로는 병사 내무반 자리가 2개 남아 있다. 일본군은 이렇게 완벽한 포진지를 구축해 진해만으로 들어서는 러시아 함대를 향해 일제히 포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공간을 설명하는 간판조차 없어 아쉽다. 이곳을 잘 활용해 야외 음악공연, 오페라 공연을 열면 진짜 근사하겠다.

외양포에는 20채가량의 집에 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그 시절 요새 사령부 관련 건물, 헌병대 막사, 무기창고, 장교 사택, 사병 내무반을 수리해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 외양포 방파제 앞 매점 건물은 그 당시 헌병대 막사 자리이다. 부대 내 치안을 담당했던 곳이라 건물 지하에는 감옥을 갖춰놓았다. 그 뒤에는 고구마, 호박 등 수확한 농산물의 저장창고로 사용됐단다.

매점 바로 앞 큰 기와 건물은 일반적으로는 당시 무기창고로 쓰이던 건물이라고 알려진다. 하지만 군대의 내무반이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금은 두 가구가 가정집으로 나눠 쓰고 있다. 목조 벽 외부에 함석을 덧대고 지붕에는 일본식 기와를 올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이나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창문 위 눈썹지붕도 일본 고유의 건축양식이다. 당시 건물의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건물 중 하나로 꼽힌다.

#02

한 건물 지붕 색깔이 왜 여러 개?

● 마을을 돌다 보면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당시의 우물터도 네댓 개를 볼 수 있다. 튼튼하게 지어져 아직도 우물 기능이 있는 곳도 있다. 그중 바닷가 근처에 있는 한 우물을 살펴보았다. 물이 아직도 찰랑찰랑하다. 샘을 판 뒤 물을 가두는 하단부는 큰 돌로 우물을 형성하고 상단부는 작은 돌로 마무리했다. 우물을 보호하는 우물대와 지붕 구조물은 붉은 벽돌로 견고하게 마감했다. 지금도 이 물은 식수로 쓰인다고 한다.

마을 중간쯤에 사병 내무반으로 쓰던 건물이 있다. 언뜻 지붕을 보니 웃음이 절로 난다. 한 건물에 현재 4가구가 살고 있는데, 가구마다 지붕 색깔이 다르다. 건물은 하나지만 지붕의 색은 가구별 경계에 따라 각기 따로 색칠해 놓았다. 여유가 생길 때 조금씩 수선해서 그렇게 된 것이란다. 설명을 듣고 나니 짠한 기분도 든다.

아쉽지만 가덕도의 맨 끝에 있는 가덕도 등대 구경은 하지 못했다. 가덕도 등대는 군부대를 통과해야 하기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덕도 등대는 1909년 12월 건립됐다. 근대 서구 건축기법이 사용된 건물로 건물 중앙에 8각형의 등탑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가덕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소희네집'이다. 다양한 가덕도 제철 해산물로 장만하는 해산물 정식은 예약 손님에 한해 휴일 100여 인분만 준비된단다. 개불, 멍게, 해삼, 굴, 꽃게장, 가오리찜, 각종 해초무침 등이 한 상 가득 푸짐하게 나온다.

● 가덕도 답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차로 가덕도 앞 눌차도 북동쪽의 정거 마을(강서구 눌차동)로 향했다. 벽화 마을로 이름이 난 곳이라 기왕 가덕도까지 온 김에 들르기로 한 것이다.

지명만 봐도 어떤 곳인지 짐작이 간다. 정거마을 동쪽의 '터질목'은 파도가 심해 일기가 고르지 못하면 배가 잘 터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고기잡이배들은 바람이 심할 때는 이곳에 닻을 놓고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피했다. 닻을 걸어 놓는 곳이라 하여 '닻걸이'라고 불렀다. 한자 지명으로 '닻 정(碇)'에 걸이를 거리(巨理)로 표기하여 '정거리(碇巨理)'라 했다.

정거마을 앞 북동쪽에는 100년 전에 생성된 천혜의 생태 보고 진우도가 있다. 동편으로 장자도, 신자도 등 낙동강 하구 퇴적작용으로 새로이 만들어지고 커지는 섬들을 볼 수 있다. 거마을 카페에서 진우도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줄을 잡고 건너는 뗏목배가 진우도까지 사람들을 실어나르면 멋진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Part 2

금정구

금샘길

요산 김정한 문학관 ···›
금정중학교(학생 3 · 1운동유공비, 4 · 19민주혁명 추념탑) ···› 외인주택 ···› 안국선원 ···›
부산 이슬람 성원

부산 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금정구

금샘길

금정구는 부산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해발 801.5m인 금정산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산성인 금정산성과 천년고찰 범어사가 있다. 금정구는 부산문학을 대표하는 소설 사하촌의 저자 요산 김정한 선생의 생가와 요산문학관이 있고, 금정산성마을에 위치한 사립미술관 킴스아트필드 등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금정구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범어사와 함께 가톨릭을 대표하는 오륜동의 한국순교자박물관이 있다.

코스약식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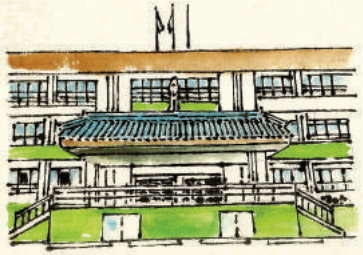
1.요산 김정한 문학관 — (1,000m, 도보 20분) — 2.금정중학교(학생 3 · 1운동유공비, 4 · 19민주혁명추념탑) — (1,120m, 도보 22분) — 3.외인주택 — (450m, 도보 9분) — 4.안국선원 — (90m, 도보 2분) — 5.부산 이슬람 성원

1. 요산 김정한 문학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김정한의 문학관. 요산 김정한(金廷漢)의 문학 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여 발전 · 육성시키며,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 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요산기념사업회에서 요산 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 이에 따라 2006년 11월 20일 요산 문학관이 건립됨. 1층에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책을 볼 수 있는 북 카페가 있고, 2층에는 요산의 유품, 요산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자료, 육성 및 생전 인터뷰 등이 담긴 영상 자료 등을 갖춘 전시실과 3,000여 권의 소장 도서가 구비된 도서실, 3층에는 일반인이나 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집필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대관이 가능한 강당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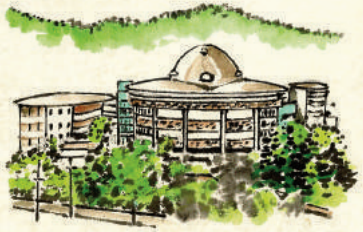
3. 외인주택

경사진 산자락 막다른 도로의 아래 위로 20여 가구의 단독주택들이 모여 있는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규모 외인주택단지



2. 금정중학교(학생 3 · 1운동유공비, 4 · 19민주혁명추념탑)

1906년 범어사에서 신학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선각자 스님들에 의해 '명정학교'로 개교함. 교내의 금정역사관에는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불설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경과 문화재자료 53호로 지정된 반야원법당의 석조여래좌상이 있는 문화재 보유학교임. 금정중학교 소장본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금정중학교 졸업생으로 3 · 1운동 유공자인 동광선사(이근우)가 소장했던 책을 상좌인 육락스님으로부터 2006년 2월 9일 기증받아 금정중학교 역사관에 보관함.



4. 안국선원

남산동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 안국선원(安國禪院)은 1989년 10월 금정포교당을 모체로 하여, 1993년 9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안국사로 이전하였고, 2005년 3월 금정구 남산동에 대지 1만 1933㎡, 건물 6,492㎡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3개동으로 구성된 종합 불교 회관인 부산안국선문화원을 준공하여 이전. 부산에서 개원한 뒤, 1996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도 안국선원이 개원함. 매월 음력 1일과 15일에 정기 법회를 개최하고 재가 신도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매일 새벽, 오전, 오후 정진 시간을 갖고, 매월 정기 법회일에 간화선 수행을 원하는 신도들을 위한 선원장의 초심자 법문이 있으며, 일 개월 후에 초심자 법문에 참가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공부를 지도하고 있음.

5. 부산 이슬람 성원

부산과 인근에 상주하는 무슬림들의 예배 장소로 한국에 이슬람을 올바로 알리고,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을 전도하며, 한국과 이슬람 세계와의 가교 역할 담당을 위해 1980년 9월 30일 설립. 초창기에는 아랍 및 중동 건설 경기에 편승하여 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용. 현재는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자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순수 종교적인 목적의 입교가 증가하고 있음. 2005년에 이슬람 음식 전문점인 '카파도키아'를 오픈.

요산문학관, 3 · 1운동으로 빛나는 금정중학교, 수행도량 안국선원, 외인주택, 이슬람 부산성원까지 금정구의 주요 코스를 순례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부산의 정신문화는 금정구가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마철의 한가운데라 전날까지도 많은 비가 예보되었다. 하지만 투어 시간만큼은 하늘도 애써 비를 참아 주었다.

#01

사람답게 살아라

● 셋째 주 토요일, 부산이 궁금한 사람들이 남산동 요산문학관에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문학관 옆 마당에는 요산이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낸 기와집이 복원되어 있다. 일찍 온 참가자들은 마당에서 아주 오랜만에 네 잎 클로버를 찾고 있다.

요산 선생의 흉상은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딨노?"라고 말씀하시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다. 손수 식물도감까지 만든 요산에게 이름 모를 꽃은 어불성설이다. 3층 전시실에서 요산이 만든 식물도감과 우리말 낱말카드를 만났다. 그림도 아주 잘 그리셨나 보다. 꼼꼼한 색칠에서 세심한 성격이 느껴진다.

지하 1층 강당에서 선생이 살아 계실 때 모습을 동영상으로 감상했다. 요산은 금정구 남산동에서 태어나 범어사가 세운 사립 명정학교에 입학해 신교육을 받았다. 요산은 민족사의 질곡과 소외된 주변부 사람들의 현실에 맞서 싸웠던 참 지식인이었다.
평생 지역에서 삶의 텃밭을 가꾸어 '낙동강 파수꾼', '부산의 큰 어른'이란 별명도 얻었다. 부산일보 상임논설위원도 지냈다. 좌우명을 묻는 말에 선생은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일갈하신다.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일일까, 이 시대에는 어떤 글을 써야 할까, 고민하게 만든다.

● 문학관에서 내려와 중앙대로를 건너 금정중학교로 향했다. 이 학교는 1906년 범어사 금어암에서 사립 명정학교로 시작해 개교 110년이 되어 간다. 요산을 비롯해 배출한 인재가 즐비하단다.

교정에 들어서자 3 · 1운동유공비와 4 · 19민주혁명추모탑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1919년 명정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동래장날에 의거를 단행, 재판을 받은 학생만 34명이나 되었다. 이로 인해 한때 폐교. 또다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943년에 폐교당하는 수난 속에서도 면면히 전통을 이어왔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볼거리도 많다. 2004년에 개관한 역사박물관과 2011년에 문을 연 명정박물관은 예약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 석조여래좌상과 불멸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등 문화재도 2점이나 된다. 본관 건물에 관세음보살상이 세워져 있고, 청소년 영화 '몽정기'가 여기서 촬영되었다.

#02

공업 입국의 흔적 외인주택

● 금정중학교를 나와 도시철도 남산역을 지나 조금 올라가니 '외인주택'이라고 적힌 표지가 보인다.
경사지 산자락 막다른 도로 위쪽으로 20여 가구의 예쁜 단독주택이 외인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날 청산유수의 말발로 멋진 문화해설사 데뷔전을 치른 김춘식 해설사가 나섰다.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공업 입국을 내걸었지만 기술이 부족하자 외국에서 고급 기술자들을 데려와 여기서 살게 하며 외인주택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외국인 기술자는 다 빠져나가고 내국인이 살아 겉과 속이 다른 외인주택 단지가 되었다." 담쟁이덩굴이 우거진 울긋불긋한 지붕의 외인주택은 부산 속 외국 같았다.

#03

세계의 종교가 한자리에

● 외국 같은 곳을 빠져나와 이번엔 심지어 외계(?)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조계종 사찰로 간화선 수행도량인 안국선원은 둥그런 돔 형식으로 지어졌다. 볼록한 지붕이 살짝 비행접시처럼 보인다. 이 특이한 구조는 현대 도심 사찰 건축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층 법당으로 오르는 복도와 계단은 나선으로 둥글게 돌아간다. 난간 끝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신기하게도 사람의 눈 모양이 겹쳐져 보인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법당은 높이 18m에 이르는 천장 가운데가 솟아 장엄하면서도 사람을 감싸 안는 편안한 느낌이다. 그런데 천장 좌우 양편의 창에서 다시 한번 가늘게 뜬 사람 눈의 형상을 만났다.

안국선원에는 영원히 잠들지 않는 '지혜의 눈'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았다. 다례상까지 대접 잘 받고 안국선원을 나섰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불교를 만나라고 가르치는 절이라는 지인의 소개에 흐뭇해졌다.

안국선원 맞은편에는 모스크 양식의 이슬람 부산성원이 있다. 극락정토에서 이슬람 세계까지 거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미처 몰랐다.

우리는 남녀 구별 없이 2층 예배당 내부에 앉았다.
하지만 예배 때는 3층에 여성전용공간이 마련된다. 부산성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 서북서쪽으로 치우쳐 있다. 예배당 바닥 카펫의 규칙적인 줄 모양도 눈에 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예배 때 발끝을 맞추기 위해서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이동하 부산지회장은 "이슬람에 대해 편견이 많지만 '너는 너의 종교, 나는 나의 종교'라는 말처럼 이슬람의 기본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국선원 법당으로 오르는 복도와 계단은 나선으로 둥글게 돌아가 위에서 보면 사람의 눈 모양이 겹쳐져 보인다.

단식의 목적도 신앙심뿐만 아니라 불쌍한 이에 대한 동정심과 배고픔 공유 등을 위해서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 바로 옆 이슬람 음식 전문점인 '카파도키아'는 이슬람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케밥을 먹으며 헤세이티 인문학 카페 황경민 대표의 부산말로 가사를 만든 노래 공연을 들었다.

Part 3

기장군

성터해안길

신라토성 ··· 두모포 진성터 ··· 죽성리왜성 ···
보호수&국수당 ··· 황학대 ··· 윤선도 유배지 ···
기장(죽성)성당 ··· 어사암 ··· 거북바위 ···
두모포 풍어제터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기장군

성터해안길

기장은 옥황상제의 옥녀가 이곳에 내려와 베틀을 차려 비단을 짜고 물레질을 한 곳이므로 배틀(機)와 배풀(張)으로서 기장이라 하였고, 그 별호를 차성이라 하였다는 설이 유래되었다. 멸치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기장군은 1995년 부산에 편입되었으며, 기장팔경으로 달음산, 죽도, 일광해수욕장, 장안사계곡, 홍연폭포, 소학대, 사랑대, 임랑해수욕장 등이 유명하다.

코스약식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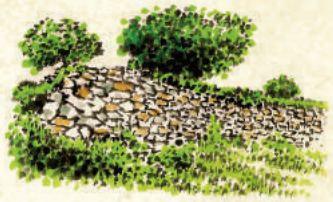
1.신라토성 — (500m, 도보 10분) — 2.두모포 진성터 — (180m, 도보 3분) — 3.죽성리왜성 — (1,100m, 도보 22분) — 4.보호수&국수당 — (250m, 도보 5분) — 5.황학대 — (90m, 도보 2분) — 6.윤선도 유배지 — (230m, 도보 5분)

1. 신라토성

기장읍 죽성리에 있는 웃마을 뒤편 언덕을 옹산이라 하는 곳에 오래된 성지가 있고, 이 옹산의 서쪽을 일직선으로 깎아질러 보면 바로 토성. 신라시대의 토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 축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정확한 연구도 없음. 신라토성 근처에 국가사적이기도 했던 죽성 왜성이 있으며, 이 왜성을 연구하기 위해 지금도 일본에서 학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음.

2. 두모포 진성터

두모포 진성터는 기장읍에서 죽성 방향으로 난 도로를 따라가다가 시온그룹을 지나면 왼쪽에 청강천과 접한 오징어 덕장이 나오는데 이 일대에 위치함. 1629년에 성을 그대로 두고 영(營)을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으로 옮겼으나, 진의 이름은 그대로 두모포영이라 불렀으므로 구별을 위하여 기장현의 두모포란 지명은 두호로 개칭함



3. 죽성리왜성

기장 죽성리에 있는 부산 기념물 제48호. 임진왜란 때 일본장수인 구로다 나가마사가 조선군과의 장기전을 위해 지은 일본식 석성. 성벽은 화강암을 써서 70도 정도로 비스듬히 쌓았으며, 성벽의 총 연장은 300m 정도 이고, 성의 둘레는 약 960m, 성벽높이는 4~5m.

4. 보호수&국수당

기장 죽성리해송은 5그루의 나무가 모여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보이는 노거수로 가지가 아래로 처져 있어 해송 종류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빼어난 수형을 가짐. 5그루는 각기 다르지만,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아주 균형 잡힌 모습. 폭 30m 정도이며, 높이 20m, 가슴높이 둘레 3.5m.

5. 황학대

고산 윤선도는 기장에서 7년간 유배생활중 백사장 건너에 있는 송도를 중국양자강 하류의 신선이 황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황학루와 견주어 황학대라 이름짓고 이곳을 매일 찾음. 황학대는 죽성리 남쪽 해안가에 자리한 큰 바위로, 북쪽으로는 죽성천이 동해로 흘러들며, 동쪽으로는 암석 해안이 발달해 있음.

6. 윤선도 유배지

고산은 일생동안 총 20년의 유배생활과 19년의 은거 생활을 거친, 고난과 파란에 점철된 개인사를 가진 사람이었다. 혈기 방장한 성균관 유생 시절, 고산은 집권세력의 죄상을 고하는 상소문을 광해군에게 올렸다가 바로 경원으로 유배되고 말았다. 경원에서 1년을 보낸 고산은 1618년 겨울에 기장군 죽성리로 이배되었으며 이곳에서 견회요, 우휴요등 시조 6수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440m, 도보 9분) (550m, 도보 11분) (520m, 도보 10분)

7.기장(죽성)성당 8.어사함 9.거북바위 10.두모포 풍어제터

7. 기장(죽성)성당

죽성리 바닷가에 하얀 죽성성당이 동화속 그림같은 풍경의 성당. 황토 빛 암벽 위에 우뚝 솟은 죽성성당은 2009년 드라마 드림하이의 세트로 지어져 드라마 제목을 붙여 드림성당으로도 불림.

8. 어사암

어사암의 명칭은 암행어사 이도재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와서 이 바위에 '어사암'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전해짐. 이전에는 바위의 형상이 매를 닮았다 하여 매 바위 또는 응암이라고도 하였음.

9. 거북바위

거북이가 바다 속에서 불쑥 나오는 모양의 거북바위는 갈매기들의 휴식처. 해뜰 때 이곳에 가면 돌 거북이 입을 벌려 해를 삼키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음.

10. 두모포 풍어제터

풍어제(豊漁祭)란 일종의 굿행위. 바다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깃들어 있으며 이들의 평안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기장군의 전통풍어제인 '두모포풍어제'는 몇 년 전부터 이곳 주변에 있는 두호, 대변, 학리, 칠암, 이천 등 5개 마을별로 열리던 것을 요즘은 일원화되어 매년 정월 대보름 전후로 5~7일간 이곳에서 주로 열림.

그냥 비도 아니다. 호우주의보까지 내린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막상 아침이 되자 신기하게도 비가 안 오는 게다.
이쯤 되면 '부산 속 들여다보기'는 '태양의 후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부산에서 유일한 군(郡)이자 가장 16개 구군 중 가장 넓은 지역이 기장군이다.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들이 기장군 기장읍 기장실버타운 앞에 속속 모였다.

#01

이름 없는 우리성과 잘 보존된 왜성

● 기장(機張)이라는 지명은 통일신라 시대에 처음 사용되었다. 『삼국사기지리지』에는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갑화양곡현(甲火良谷縣)'에서 '기장현'으로 개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장군 투어의 첫 목적지인 신라 토성 흔적은 기장실버타운 안에 들어가야 볼 수가 있다고 했다. 실버타운에 계신 분들을 생각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향했다. 신라 토성의 흔적은 유리 보호막 안에 들어 만져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신라 시대의 토성으로만 알려졌지 이 토성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제 축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다. 여기에 대해 아직 정확한 연구도 없었다니….

● 기장실버타운 아래쪽으로 내려서니 녹색의 벌판에 두모포진성(豆毛浦鎭城) 터가 있다. 왜구를 막기 위해 조선 시대 경상 좌수영 관하의 수군 진성의 흔적이다. 병선 16척이 있어 이들의 물자 보급을 위하여 해안에 쌓은 성이란다.

동명대 이정실 교수는 "1629년 성을 그대로 두고 영(營)을 부산시 동구 수정동으로 옮겼으나, 진의 이름은 그대로 두모포영이라 불렀다. 서로 구별을 하기 위해 기장현의 두모포(豆毛浦)란 지명은 두호(豆湖)로 개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이라 풀이 무성해서 아쉽게도 성의 흔적이 잘 안 보인다. 단골 해설사 이미숙 씨가 "성 터 흔적을 자세히 보려면 겨울이 좋다. 겨울이 되면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덧붙인다. 근처에 있는 죽성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연못에 '두모포 소정'이라고 고맙게도 옛 지명을 남겨뒀다.

오늘의 해설사 김차순 씨가 "저쪽이 소름요 공방입니다"라고 언덕 위쪽을 가리킨다. 소름요 한쪽에는 무명 도공 추모비가 있단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빨래를 해서 세탁골이라도 불린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소름요 공방을 멀리서 스쳐 지나간다.

● 두호마을 방향 표지판을 지나 왜성 쪽으로 향했다.
정식 명칭은 기장 죽성리 왜성 혹은 두모포왜성이라고 부른다. 총면적이 2600평에 석축 둘레가 960m에 달한다. 임진왜란 때 왜장 구로다 나가마사가 무려 3만 3000명을 동원해 만들었단다. 이 왜성은 꽤 튼튼하게 지어져 지금까지도 그 위용이 남아있다.

김차순 해설사가 "우리가 지은 성은 연구가 없어 이름도 없는데 이 왜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본에서 학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라고 뒷이야기를 해준다. 뒷맛이 참 씁쓸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역사에 무관심할 것인가?

● 이제 기장의 명물인 죽성리 해송을 만나러 갈 순서다.
이 해송은 6그루의 나무가 모여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보인다. 수령이 250년~300년 된 노거수다. 이 노거수는 언덕에 서서 기장의 변천사를 다 지켜보았을 것이다. 노거수 사이에 국수당이 있다.
여기서 동네 사람들이 음력 정월 보름에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큰비가 내린 탓에 가까운 바다는 흙탕물이 되어 뻘겋다.

#02

누구나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 해녀상을 지나 황학대 언덕으로 오른다. 황색의 바위가 길게 한 덩어리가 되어 바다에 돌출되어 있다. 그 모습이 마치 황학이 나래를 펴고 있는 것 같아 황학대라 부른다. 고산 윤선도가 6년간 기장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시, 서, 제문 등 29수를 남긴 곳이다.

이제는 성당인 듯 성당 아닌 유명한 죽성성당으로 향하는 해안길이다. 죽성성당은 드라마 '드림'에 나왔던 세트장이었다. 그래서 '드림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에 서면 누구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다. 김차순 해설사가 "아무나 꿈을 꿀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이루는 것은 아니다. 생각만 하면 꿈은 달콤하지만, 꿈에 다가갈수록 피가 스미고 땀이 배어 있다. 아무리 작은 꿈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찬란한 것이다"라고 드라마 속 대사를 멋지게 읊는다.

● 기장 앞바다에는 명물 바위들이 있는데 먼저 어사암이 나타났다. 어사 이도재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바위에 '어사암(御使岩)'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이전에는 바위의 형상이 매를 닮았다 하여 매 바위 또는 응암(鷹巖)이라고도 했다.
두모포 풍어제 터 앞에는 거북을 닮은 거북바위도 보인다.

김차순 해설사는 "매년 정월 대보름 전후로 5~7일간 이곳에서 풍어제가 열린다. 백 년 이상 계속된 풍어제는 예전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에서 이젠 가족의 건강과 직장에서 일 잘하고 돈 많이 벌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기원의 간절함과 소박함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
부산 속 들여다보기 참가 가족의 안녕도 빌어본다.

Part 4

남구

화해길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 유엔평화기념관 ···
유엔공원 ··· 부산박물관 ··· 유엔조각공원 ···
워커하우스 ··· 문화골목

부산 속 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남구

화해길

남구는 문화의 고장으로 부산시립박물관을 비롯하여 부산문화회관이 있으며,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 조각공원, UN평화기념관,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부경대, 부산외대, 경성대, 동명대, 부산예술대학 등 남구가 지방 도시의 한 구로서는 이례적으로 서울의 신촌에 못지않은 대학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코스약식설명

1.일제강제동원 역사관 — (980m, 도보 20분) — 2.유엔평화기념관 — (550m, 도보 11분) — 3.유엔공원 — (500m, 도보 10분) — 4.부산박물관 — (500m, 도보 10분) — 5.유엔조각공원 — (1,300m, 도보 26분) — 6.워커하우스 — (300m, 도보 6분) — 7.문화골목

1.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평화와 인권의 상징물로 201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일 오픈. 정부가 지은 국내 유일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역사자료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하여 성숙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 일제강점기 때 부산항이 대부분 강제동원의 출발지였고, 강제동원자의 22% 가량이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2008년 9월 부산에 건립 방침을 확정.

2. 유엔평화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산화한 UN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세계평화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건립. UN한국전쟁관은 한국전쟁의 참상과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까지 3년 1개월이라는 긴박감을 주요 유물과 영상을 통해 전달, UN참전기념관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21개 전투 · 의료국의 활동상과 국가별 유물 및 기증유물이 전시, UN국제평화관은 유엔의 탄생부터 전 세계 평화활동과정을 볼 수 있음.

3. 유엔공원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로서, 세계평화와 자유의 대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몰 장병들이 안장되어 있는 성지. 이곳 묘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듬해인 1951년 1월, 전사자 매장을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조성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묘지가 완공됨에 따라 개성, 인천, 대전, 대구, 밀양, 마산 등지에 가매장되어 있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가 안장되기 시작함.

4.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은 1978년 7월 11일에 개관, 199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립박물관으로 개칭되었고, 2002년 5월 3일 부산광역시립박물관이 부산박물관으로 새단장 개관. 이곳에 전시된 유물들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와 문화의 성격과 내용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

5. 유엔조각공원

UN기념공원을 세계평화와 자유의 상징이 되는 국제적 관광 명소로 가꾸기 위해 조성한 UN조각공원은 한국전쟁 50주년 특별기획으로 개최된 UN기념공원 국제조각 심포지엄에 참여한 6 · 25참전 21개국의 조각가들이 제작한 34점의 조각품을 기증받아 조성됨.

6. 워커하우스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인 월턴 워커 장군의 집무실. 60여년간 부경대 캠퍼스 한 귀퉁이 역사기념관 돌담집은 365㎡ 규모의 단층 건물로 돌과 시멘트로 된 벽의 두께가 70㎝에 달해 포탄과 총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천장이 낮아 일명 '지상의 벙커'라고 불리는 건물

7. 문화골목

문화로 소통하는 도심속의 휴식처. 입구의 문화골목이라는 간판을 따라 좁은 골목을 들어서면 갤러리, 소극장, 카페, 전통주점, 라이브하우스 등 10여개의 공간이 옹기종기 들어섬. 마감재료, 조경까지 최대한 원래형태를 살려 과거 도심의 골목길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게 하는 문화골목은 저녁이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교류하는 소통의 공간

"참 걷기 좋은 날씨네요."
비 예보가 있던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도 해도 바람도 쾌적하기만 했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부산문화회관 입구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그럼 출발해 볼까.

#01

일제강제동원역사관 ···› 유엔평화기념관 ···› 유엔기념공원

● 정부는 지난해 말 한 · 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들에게 위안부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도 찾는 사람이 더 늘었다. 이날 답사 역시 가장 먼저 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향했다. 부산문화회관 뒤편 가까운 곳에 있었다. 부산항은 일제의 강제 동원 출발지였고, 광복 후 이들이 돌아와 첫발을 디딘 곳이다. 게다가 강제 동원자의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 그들처럼 좁고 어두운 복도를 통해 '기억의 터널'로 들어갔다.

● 바로 옆 유엔평화기념관으로 이동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열어 아직 여길 모르는 사람도 많다. 이날은 마침 젊은 PKO 출신이 해설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상설 전시관은 '유엔한국전쟁관'과 '유엔참전기념관', 세계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담은 '유엔국제평화관'으로 구성됐다. 영화 '국제시장'에도 등장하는 빅토리아 호의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감동적이다. 2천 명 정원에 1만 4천 명을 태워 나른 피난선. 가장 많은 승객이 탄 배로 기네스에도 올라갔다. 이 배에서는 새 생명도 5명이나 탄생했단다.

진정 한국과 부산을 사랑했던 리차드 위트컴 전 유엔군 부산군수사령관을 여기서 알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 전쟁 고아의 아버지이자 병원 건립 기금이 모자라자 모금을 위해 한복 차림에 갓을 쓰고 부산 시내를 활보하신 분.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라는 그의 말이 생생하게 들리는듯하다. 그는 죽어서도 한국에 있고 싶다고 해서 장군으로는 유일하게 유엔기념공원에 묻혔다.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얀 국화꽃이 꽂힌 묘소 보이시나요? 저 분은 60여 년 전 오늘 전사하셨습니다."
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강윤연 씨의 해설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전사자 부모들이 찾아와서 남기는 글은 거의 똑같단다. "아들아, 우린 지금도 널 사랑하며 늘 그리워하고 있단다."

또 강 해설사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지난해 9월, 예순쯤 되어 보이는 영국 신사가 찾아왔다. 그는 울음을 겨우 참는 모습이더니 아버지 묘 앞에서 결국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전사한 지 7개월 뒤에 태어났단다. 재혼한 어머니는 그에게 생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 주어 무덤 속 아버지와 첫 대면을 한 것이다. 강 씨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다. 여기 있다 보면 6 · 25에서 비롯된 가슴 아픈 사연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6 · 25전쟁 기간에 유엔군 4만 896명이 전사했다. 유엔기념공원에는 11개국 2천304명이 묻혀 있다고 했다. "가장 어린 전사자의 나이는 17세"라고 했을 때 아~ 하는 외마디가 터져 나왔다. 참전용사인 미국인 버나드 델라헌티 씨가 유엔공원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고는 최근에 숨져 이 날 안장식이 열렸다.

#02

부산박물관 ··· 유엔조각공원 ··· 워커하우스 ··· 문화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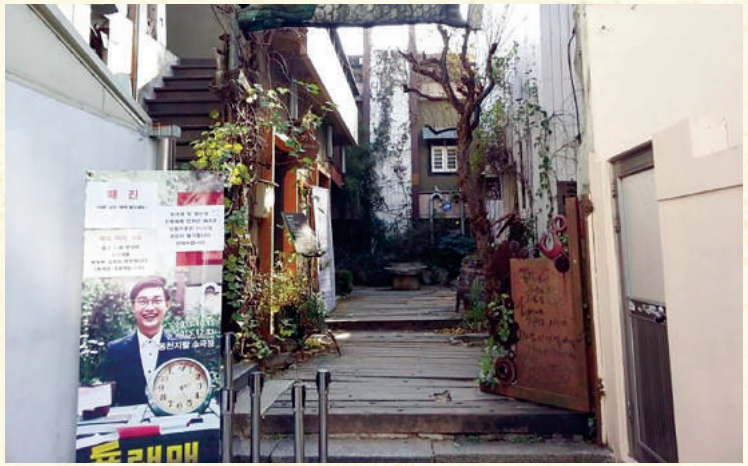
● 부산박물관으로 들어서 '유원각선생매안감고비'를 만났다. 아뿔싸! 유원각은 사람 이름이 아니었다. '유원(柔遠)'은 조선 시대 대일 외교정책의 기본 이념인 교린정책(交隣政策)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유원각 선생은 소통사, 즉 통역관이었다. 그 바로 옆에는 약조제찰비다. 두모포(동구 수정동)에서 초량으로 왜관을 옮긴 후 구역이 넓어져 왜인들의 범법행위로 피해가 심해지자 대마도주와 체결한 약조를 기록한 비다. 웬만하면 사형일 정도로 서슬이 시퍼랬다.

유엔조각공원은 6 · 25 50주년이 되던 2000년에 만들어졌다. 참전한 21개국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한 23개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남구 문화체육과 김용민 홍보팀장이 나서서 "당시 여기는 종묘장이었다. 각국에서 한 명씩 작가 추천을 받아 경기도 이천에서 두 달간 작업해서 기증을 받았다. 벨기에의 한 노작가는 완성 이후에도 5번 정도나 더 와서 보고 갔다"며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화공원까지 이어져 산책하기에 좋겠다.

잠시 걸어 부경대 안의 워커하우스로 향했다. 가장 긴박했던 1950년 9월 6일부터 18일 동안의 지휘본부. 미8군 사령부 사령관 워커 장군과 참모들이 머물렀던 역사의 현장이다. 그 뒤 교수와 학생들의 식당, 동아리방으로 사용되다 199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학생들은 '돌담집'이라고 부른단다.

부산 같은 '촌'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서울 사람의 의심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는 기존의 문화골목에 집을 한 채 더해 올가을에 게스트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코스로 '두 남자의 만국 유람기' 방송에 나오는 이창훈 씨가 래퍼로 나서 흥겨움을 선사했다. 이날 본 것을 웬만큼 글로 다 전달하겠는데 이 씨의 랩과 분위기만은 전하지 못하겠다.
부산, 특히 남구는 예전부터 참으로 글로벌한 곳이었다.

● 점심 뒤에는 부산의 명소로 자리 잡은 '문화골목'에서 최윤식 대표를 만났다. 최 대표는 서울 사람들이 문화골목 답사를 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디자인 서울에서 했죠?" "아니요. 제가 했습니다."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죠?" "아니요." "그러면 유학을 다녀왔죠?" "아니요."



Part 5

동구

이바구길

자성대 ··· 부산진시장 ··· 카페(maro) ···
영가대 본터 ··· 썩은다리 ··· 보림극장 ···
구 교통부 ··· 범일성당 ··· 매견시목사기념비 ···
정공단 ··· 부산진교회 ··· 부산진일신여학교 ···
매축지 마을(마굿간, 문화원)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동구

이바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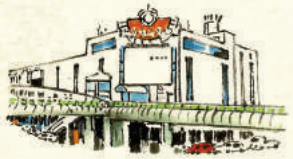
동구에는 일제강점기에 왜관이 들어섰으며, 우편국, 전차, 병원, 부두, 세관 등 근대식 시설과 신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부산진시장을 비롯한 4개의 재래시장과 좌천동 가구거리, 초량동 차이나타운 등 특화상권이 형성되어있고, 범일동 매축지 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두에 내린 마부와 말, 짐꾼이 쉬던 곳으로 광복이후 귀국 동포들이 자리 잡으며 형성된 마을이다.

코스약식설명

1.자성대 — (310m, 도보 6분) — 2.부산진시장 — (400m, 도보 8분) — 3.카페(maro) — (80m, 도보 2분) — 4.영가대본터 — (1,000m, 도보 20분) — 5.썩은다리 — (250m, 도보 5분) — 6.보림극장 — (210m, 도보 5분) — 7.구 교통부 — (290m, 도보 6분) — 8.범일성당(롯데백화점) — (570m, 도보 11분)

1. 자성대

조선시대에 만든 부산진의 지성(支城). 부산진지성 남문인 진남대는 장군의 지휘소, 1974년 부산진지성을 정비하면서 정면 5칸, 측면 4칸, 2층 규모 팔각지붕으로 증층누대를 설치함.



2. 부산진시장

1913년 개장한 이후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으로 자리잡음. 현재 2,000여 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으며, 주업종은 포목, 피목, 기성복, 양복지, 침구, 신발 등. 특히 혼수전문시장으로 명성이 높아 부산권 뿐만 아니라 경남권의 고객을 위하여 쇼핑버스를 운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3. 카페(maro)

부산진시장 골목사이 카페마로. 1층 커피숍, 2, 3층은 가죽공방으로 운영됨.

4. 영가대 본터

부산진성 근처 해안가에 선착장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만든 8칸 규모의 누각. 일본으로 가는 조선통신사의 행렬 출발지. 1624년(인조 2) 선위사 이민구가 일본 사절을 접대하기 위해 부산에 파견되었다가 이 정자를 보고 권반의 고향 안동의 옛 이름인 영가(永嘉)를 따서 '영가대'라고 이름지었음.

5. 썩은다리

경부선 철길위에 놓여진 범일동 구름다리 철길육교. 바로 앞 개천을 경계로 동구의 범일동과 부산진구의 범천동으로 나누어짐. 영화 '친구', '범죄와의 전쟁' 등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함.

6. 보림극장

1968년 개관한 1900여석의 초대형극장.1970년부터 재개봉관으로 전향후 쇼 전문공연장으로 전국최고관객을 동원함.

7. 구 교통부

부산 범곡교차로 일대의 옛지명. 1950년 초반 임시정부가 부산에 있을 때 교통 업무를 관장하던 교통부가 있던 곳임. 각종 신발공장과 삼류극장이 있던 교통의 요충지

8. 범일성당(롯데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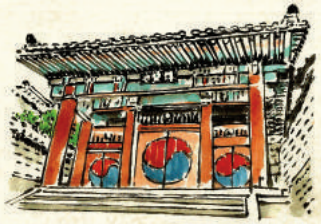
1889년 초량에 세워진 부산최초의 성당. 현 데레사여교에 위치함.

(30m, 도보 1분) (130m, 도보 2분) (10m, 도보 1분) (620m, 도보 12분)

9.매견시목사기념비 → 10.정공단 → 11.부산진교회 → 12.부산진일신여학교 → 13.매축지 마을 (마굿간, 문화원)

9. 매견시목사기념비

부산에서 한센 질환자들을 위해 20년간 봉사한 매견시 목사의 기념비. 2001년 4월 14일 복원함.



10. 정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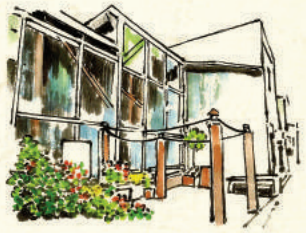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0호.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부산첨사 정발(鄭撥)을 비롯한 여러 분을 모신 곳

11. 부산진교회

르네상스식 건물로 1891년 창립. 부산진교회의 최초교인 심인택부부의 아들인 심취명이 부산경남지방 최초의 장로가 됨.

12. 부산진일신여학교

1895년 좌천동 한칸의 초가에서 3년 과정 소학교를 설치한 것이 시초.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주도한 것이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 등. 2003년 시 지정 기념물 제55호로 지정됨. 2004년 지붕, 교실, 벽체, 담장석축 보수 등의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6월 23일에 준공함으로써, 근대문화유산 보존 전승에 기여하고 있음.



13. 매축지마을(마굿간, 문화원)

일제강점기 부산 대륙 지배의 발판을 위해 시모노 세키와 부산항을 연결하여 일본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매축(매립) 시작. 해방이후 귀국동포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으면서 마을로 변모되었고, 6 · 25 이후 피난민들의 쉼터가 됨.

싱그러운 초여름날이다.
부산은 임진왜란이 시작된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줄곧 일본군 점령지였고,
조선통신사가 일본행 배를 타는 곳이기도 했다. 임진왜란부터 조선통신사,
일제강점기까지 동구를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01

조선통신사부터 일제강점기까지

● '부산속들여다보기' 참가자들은 부산진시장 육교 옆에 모였다. 혼수전문 시장으로 이름난 난 부산진시장은 2013년에 개장 100주년을 맞았다. 1722년 조선 영조 48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는 '부산진성 서문 밖에 있는 미곡과 건어물 집산지로 4일과 9일장을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 시장을 둘러보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활기차게 만든다.

부산진시장에서 자성대를 향해 출발했다.
자성대, 부산사람이라면 많이 들어본 지명이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부산진성이 모성(母城), 부산진지성은 자식의 성이라는 뜻에서 자성대(子城臺)라고 부른다. 아하!

현재 남아 있는 자성대 성터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에 주둔하면서 본래 있던 성을 허물고 왜식 축성법에 따라 쌓았다. 1592년 일본군의 선봉장인 고니시 유키나가 주둔해서 고니시성이라고도 한다.

자성대 공원 정상으로 올라가니 진남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기다린다. 장군들의 지휘 장소인 장대(將臺)를 '진남대'라 부른다. 진남대 옆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 천만리(千萬里)의 후손이 세운 천장군 기념비도 남아 있다.

한 · 중 · 일이 여기에 다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부산진지성 서문 양측 성곽에 끼인 우주석에는 '南徼咽喉(남요인후) 西門鎖鑰(서문쇄약)'이라 새겨져 있다. "이곳은 나라의 목에 해당하는 남쪽의 국경이다. 서문은 나라의 자물쇠와 같다"는 뜻이다. 부산은 예전부터 지정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 자성대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이름만 들어도 그리운 영가대(永嘉臺)가 나타났다. 영가대는 조선 후기 통신사를 비롯한 사신들이 일본까지 무사 항해를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제당이었다. 먼 바닷길로 나가는 출발과 귀환의 상징적인 지점이었다. 본래 자리는 부산진시장 서쪽의 철로 변으로 그 곳에도 영가대 기념비를 세워 두었다.

원래 영가대는 1614년(광해군 6년) 경상도관찰사 권반이 선착장을 만들며 준설 공사로 파낸 흙이 언덕을 이루자 그곳에 망루를 겸해 세운 8칸 누각이었다.
동래부사들은 부임을 한 뒤로 영가대에 들러 빼어난 부산포의 절경을 시 한 수로 읊었다. 강필리는 영가대에서 본 수려한 경치를 "바다가 높은 난간에 들어와 홀연 한 잔 술이 되었네"라고 노래했다. 영가대 바로 곁에는 '조선 통신사 역사관'을 만날 수 있다.

돌이 쌓여 성처럼 보이는 정공단(鄭公壇)을 만났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부산첨사 정발(鄭撥)을 비롯한 여러 분을 모신 곳이다. 지금도 제사는 순절날인 음력 4월 14일에 거행된다. 일제강점기 때 제단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잠시 중단되었을 뿐 이에 굴하지 않고 단을 유지해왔다.

● 정공단 오른쪽으로 매견시 목사 기념비가 있다. 매견시(梅見施)? 이 분은 누굴까. 본명은 맥켄지(Mackenzie)다. 1910년 부산에 선교사로 와서 한센병 환자 병원인 '상애원'을 열고 30년간 봉사를 했다. 한국식 이름인 '매견시'로 개명까지한 맥켄지 씨는 부산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던 '매리 켈리'를 만나 결혼했다. 캘리 씨는 일신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해 부산의 여성들에게 신교육을 보급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이들 부부의 두 딸이 바로 부산 일신기독병원 설립자인 매혜란, 매혜영이다. 자매는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며 무상으로 치료해주며 의료봉사활동을 다녔다.

우리는 이들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가.

#02

매축지 마을엔 정겨움이 피어올라

● 정공단에서 왼쪽편으로 조금 올라오면 부산진교회가 나타난다. 부산은 물론이고 영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교회다. 당시에는 80평의 대지에 세워진 한옥 교회였다. 한국에 파견된 첫 호주 장로교 선교사였던 데이비스는 부산에 개신교의 씨앗을 뿌리고 복병산에 묻혔다. 그의 흔적 없음이 안타까워 부산진교회 안에 당시 묘비를 복사해 세워 두었단다.

그 앞에는 1905년에 호주장로교 선교회에 의해 건립된 건축물인 부산진일신여학교다. 원형을 잘 보존한 서양식 건물로, 비례와 균형미가 돋보여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다. 또한 부산에서 3 · 1독립운동의 깃발을 처음으로 올린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다.

동구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는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매축지마을이다. 1913년부터 1938년까지 일제는 해안을 매립하여 방대한 매축지(埋築地)를 조성했다. 이 공사로 초량동 · 수정동 · 범일동을 거쳐 우암 · 적기까지 150만㎡가 매축되었다.
다른 지역은 부두나 도로로 이용되었으나 초량천 하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매축지에는 세 가지가 없고 세 가지가 많아 '삼무삼다(三無三多)'의 마을이라고 부른다. 없는 것은 마당, 햇빛, 바람이고 많은 것은 노인, 빈집, 공동화장실이다. 옛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마구간하우스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다. 역시나 햇빛이 잘 드는 마당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다.

할머니들이 양지바른 곳에 서너 명씩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어슬렁거리는 동네 고양이는 이방인의 출현을 흘낏거린다. 신기하게도 벽시계를 집안이 아니라 골목에 걸어두었다. 이 마을엔 안과 밖의 구분이 없나 보다. 매축지는 처음 온 사람이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좁은 미로 같다.

영화 '친구', '아저씨', '마더'를 이곳에서 찍었다. 조금 유명해진 덕분에 매축지에는 요즘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Part 6

동래구

향교읍성길

박차정의사 생가 ··· 동래동헌 ··· 송공단 ···
복천동 고분 ··· 동래읍성 역사관 ··· 서장대 ···
동래향교 ··· 장관청

동래구

향교읍성길

동래의 역사가 곧 부산의 역사라 할 만큼 동래구는 부산의 중심지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천동 고분군으로, 6세기 이전 부산지역 유일의 지배층 무덤이자 가야문화의 번성을 보여주는 문화의 뿌리이며, 임진왜란때 동래부사 송상현이 동래읍성에서 왜군에 맞서 백성들과 함께 격렬한 투를 벌인 곳이 동래이다. 선조들의 얼과 숨결이 깃든 충렬사, 동래향교, 동래읍성지 그리고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충렬사 제향 등 유 · 무형의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임진왜란 등 거듭된 외침에도 한마음으로 뭉쳐 극복해 온 호국충절의 고장이다.

코스약식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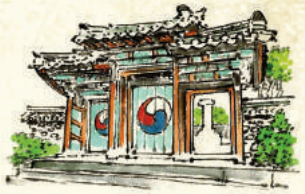
1.박차정의사 생가 — (400m, 도보 8분) — 2.동래 동헌 — (200m, 도보 4분) — 3.송공단 — (1,000m, 도보 10분) — 4.복천동 고분 — (300m, 도보 3분) — 5.동래읍성 역사관 — (300m, 도보 6분) — 6.서장대 — (500m, 도보 10분) — 7.동래 향교 — (400m, 도보 8분) — 8.장관청

1. 박차정의사 생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민족해방운동가인 박차정은 1910년 동래 복천동에서 태어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을 주도. 박차정의사 생가 시설규모는 대지 347㎡, 한옥 31,87㎡으로, 2005년 생가 복원이 됨. 아늑한 가정집 정원에 건물내 독립훈장, 태극기, 밀성박씨 가계도, 각종 전시패널이 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40-1-2호로 지정됨.

2. 동래동헌

조선시대 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중요한 건물로 1636년 동래부사 정양필이 창건하여 조선시대 말까지 동래부와 동래관찰사의 아헌으로 사용. 동래부는 정3품 당상관이 부사로 임명되고, 국방 및 대일외교상 중요시되었던 곳로 다른 고을에 비해 규모가 큼. 동헌은 일제시기부터 관청 건물로 사용되어 개조 · 보수를 거치면서 목재 등의 재료가 대부분 교체되어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었으나, 부산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유일한 동헌이며,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관아 건축양식을 보여줌.



3. 송공단

송공단은 1742년 동래부사 김석일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 공이 순절한 정원루의 옛터에 설치하고, 송상현 공을 비롯하여 임란 당시 순절한 여러 선열들을 모신 곳. 송공단은 처음에는 동, 서, 남, 북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 뒤 동래성에서 순절한 분들은 송공단에, 부산진성에서 순절한 분들은 좌천동의 정공단에, 다대진성에서 순절한 분들은 다대동의 윤공단에 각각 별도로 모심.

4. 복천동 고분

현재 동래 중심가 북쪽에 반달모양으로 에워싸고 있는 마안산(속칭 대포산)의 중앙부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 복천동고분군은 1969년 주택공사로 고분군의 일부가 파괴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후 1995년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과 부산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지금까지 긴급 및 정식발굴을 통해 조사된 유구는 모두 169기에 달하며, 출토 유물은 총 10,000여점.

5. 동래읍성 역사관

동래의 풍경,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래읍성의 모형, 동영상, 각종 유물들을 볼 수 있곳으로 2007년 3월 동래읍성 역사관을 건립. 동래읍성 역사관은 한옥 형태의 단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사관 안에는 동래읍성의 모형 동영상, 각종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음. 역사관 마당에는 투호 · 제기차기 · 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고, 광장에는 야외 공연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춤. 역사관은 시민들에게 부산시 특히 동래 지역의 역사에 대한 배움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함.

6. 서장대

동래읍성지는 동장대가 있는 충렬사 뒷산에서 마안산을 거쳐 서장대가 있는 동래향교 뒷산까지의 구릉지와 현재 동래 시가지 중심지역인 평지를 일부 포함하는 지세에 전형적인 평산성 형식으로 축조되어 산성과 평지성의 장점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읍성. 동래읍성 북문을 중심으로 성곽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장대, 서쪽으로 올라가면 서장대를 볼 수 있음.

7. 동래향교

조선시대 향교로 지금의 건물은 유교의 성현을 모신 대성전, 향교의 건물구조는 명륜당을 중심으로 반화루, 동재, 서재로 구성된 강학공간과 대성전을 중심으로 동무, 서무와 내 · 외삼문, 사주문으로 구성된 제향공간으로 구성.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재정에 의해 설치 · 운영된 공립 중등학교격인 교육기관으로 성현을 제사 지내는 제향 기능, 유생에게 유학을 교육하는 교학 기능과 함께 지방의 문화향상 등 사회교화 기능도 갖고 있음.

8. 장관청

장관청은 조선후기 동래부 청사 건물의 하나로 군장관들의 집무소, 동래부는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동래독진의 설치로 양산군 및 기장현 소속의 군병까지도 통합 지휘할 수 있게 되면서 장관의 기관으로 설치됨. 동래 장관청은 정면 6칸, 측면 2칸 규모의 'ㄱ'자형 구조로서 조선후기 관아 건축양식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으나, 보수 과정에서 구조가 많이 변경되어 원래의 모습을 거의 잃고 있던 것을 1998년 2월에 원래대로 고쳐지어짐.

부산의 중심지인 동래!
동래는 온천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격동기를 거치는 역사적 지역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잊히는 옛 지형과 생활상, 문화들을 되새겨
역사 속으로 빠져보자.

#01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 2015년 개봉된 영화 '암살'이 히트치면서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단장을 지냈던 김원봉 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의외로 그의 부인이자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않다. 동래고등학교에서 모여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박차정 의사 생가가 동래구의 첫 번째 코스였다.

부산에는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지만 여성으로서 독립을 위하여 항일운동을 주도하신 분 중 생가와 동상이 세워지 있는 분은 많지 않다.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동쪽에 박차정 의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며, 동래구 칠산동에는 박차정 의사의 생가가 있다.

단아한 한옥 집에서 출생한 박차정 의사는 동래일신 여학교(현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종협힌 그 해부터 항일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의해 옥고를 격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였으며, 1931년 김원봉 선행과 결혼을 하고, 이듬해 남편과 함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여 제1기 여자교관으로 활약하였다. 이후 민족혁명 부인회, 조선의용대 복무단장 등으로 일본과 전투에 직접참여하였으며, 1944년 34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고 한다.

● 박차정 의사 생가를 나와 동래시장을 가로질러 가면 동래부 동헌이 나온다. 조선시대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던 곳인 동헌은 포졸모형이 먼저 우리를 반긴다. 동래동헌은 일제가 강제로 동래부 동헌 독진대아문(동래부 동헌 바깥 대문)과 망미루(바깥 문루)를 원래 자리로 이전하여 하나씩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고 한다

동래구편 해설사인 박성부 교수는 동래부 동헌은 인조 14년(1636) 동래부사 정양필이 창건하였고 숙종 37년(1711) 동래부사 이정신이 충신당이라 이름하여 현판을 걸었으며 조선 말까지 사용하여 왔는데 동래군 청사, 보건소 등으로 사용되면서 벽체와 마루, 천장 등이 개조되었다고 한다. 동래부는 정3품 당상관의 부사가 재임하던 곳이며 국방상, 대일 외교상 중요시되었던 곳이므로 관아건물도 다른 고을에 비하여 규모가 컸으며 위용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제시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 · 이전되었다고 하였다.

박해설사는 현재 부산시가 아니라 동래시가 되어야 하는데,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서 동래는 축소되고 부산포가 성장하여 오늘 부산시가 되었다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다.

● 동래부 동헌을 뒤로 하고 근처 송공단을 찾았다.
송공단은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김석일(金錫一)이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 순절한 정원루(靖遠樓) 유지에 설치한 단으로, 송상현을 비롯하여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순국선열을 모신 곳이다.

처음에는 동래성 전투, 부산진 전투, 다대포 전투에서 순절한 분들을 함께 모셨다가 정공단과 윤공단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다대포에서 순절한 분들은 윤공단, 부산진에서 순절한 분들은 정공단에 배향되었다. 제단은 대상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 제단의 높이와 위치를 달리 만든 것이 특징이다.

● 송공단을 나와 이젠 복천동 고분으로 향하였다.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고분군으로 3세기대에서 7세기대까지 조영되었으며 4~5세기가 그 중심연대이다. 대규모의 고분군이 복천동 일대 대포산의 중앙부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나온 그리 높지 않은 구릉 위에 밀집 분포되어 있다. 이 고분군은 1969년 9월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동아대학교와 부산대학교박물관 및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발굴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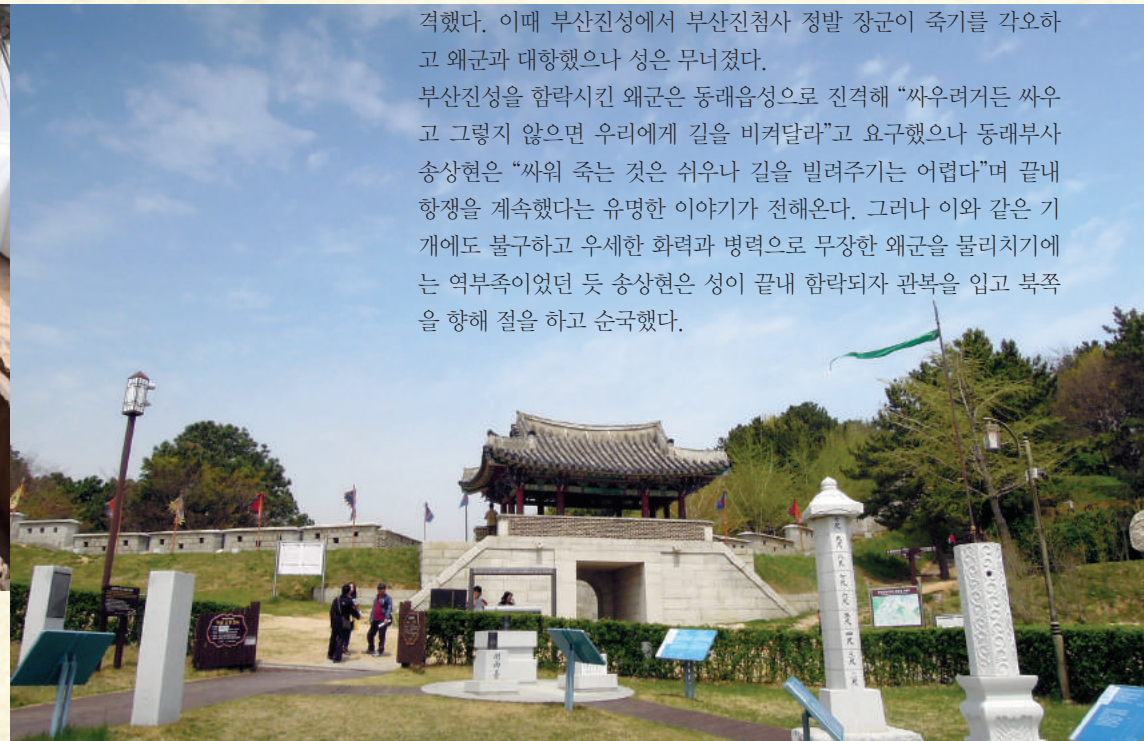
복천동 고분과 연결된 동래읍성 역사관에 방문하였다. 동래읍성 역사관은 동래의 역사, 풍경, 동래읍성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을 마련해 놓았다. 특히 조선 후기 동래읍성의 축소 모형은 현재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동래읍성의 옛 모습을 짐작케 한다. 역사관의 가운데에는 동래읍성 모형도를 중심으로 동래와 동래읍성에 관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또 벽면에는 동래읍성의 전투 이야기, 동래읍성의 장대(將臺)와 수구(水口)에 대한 설명, 동래읍성 성벽 구조와 문의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02

교통의 요충지 동래

● 서장대를 가기 위해서 나지막한 언덕을 넘어야 하지만 심심치 않게 하는 코스다. 언덕에 올라가면 동래를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정산, 배산, 금련산, 황령산 등 부산에 있는 크고 작은 산도 감상할 수 있다. 참가자들 하나 같이 감탄사를 연발한다.
동래읍성에는 동, 서, 남, 북문과 인생문, 암문 등이 있었으며 동장대, 서장대, 북장대 등의 시설이 있었으나 대부분 성문과 성곽은 일제 강점기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철거되고 산지에만 일부 남아있다고 한다. 북문을 중심으로 성곽을 따라 북쪽으로 올가면 북장대가 나오고 서쪽편 성곽을 따라 올라가면 서장대가 나온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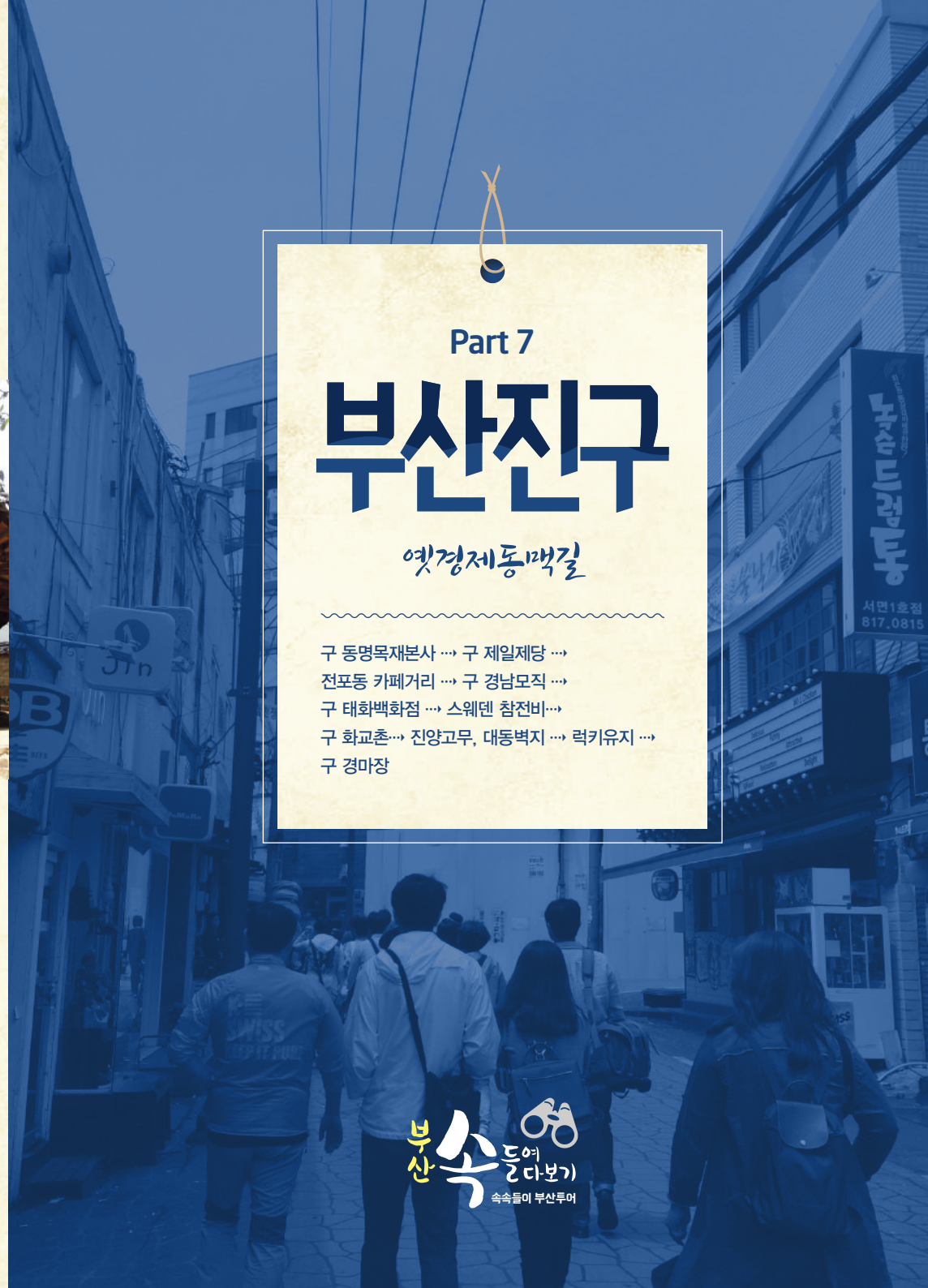
언덕에서 박 해설사는 동래읍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동래읍성이 처음 축조된 것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곳 동래읍성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시기는 선조 25년(1592) 4월 임진왜란 초기이다. 왜군은 선조 25년 음력 4월 13일 오후 5시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 증산 아래에 있던 부산진성을 공격했다. 이때 부산진성에서 부산진첨사 정발 장군이 죽기를 각오하고 왜군과 대항했으나 성은 무너졌다.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동래읍성으로 진격해 "싸우려거든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으나 동래부사 송상현은 "싸워 죽는 것은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며 끝내 항쟁을 계속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개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화력과 병력으로 무장한 왜군을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듯 송상현은 성이 끝내 함락되자 관복을 입고 북쪽을 향해 절을 하고 순국했다.



● 서장대에서 내려다보면 동래향교가 보였다.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이라 쉼없이 바로 동래향교에 도착했다.
동래향교는 조선시대 국립지방교육기관으로 유교의 성현(聖賢)을 모신 대성전, 학문을 강의하는 명륜당, 교생들이 기거하는 동재(東齋) · 서재(西齋)를 비롯하여 반화루, 동무 · 서무, 내삼문, 외삼문 등이 있다.

● 동래향교에서 골목길을 따라 걷다보면 동래구청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래파전집을 옆으로 하고 걷다보면 식당 주차장이 있는데, 이 뒤에 장관청이 있다. 동래에 사는 참가자들도 이런 곳에 장관청이 있네요할 정도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주차장에 세워진 차들로 인해 쉽게 눈에 띄지않는 곳이 있다.

장관청은 조선후기 동래부 청사 건물의 하나로 이곳 군장관(軍將官)들의 집무소였다고 한다. 동래부는 일본과 인접하고 있는 국방상의 요충이었고 이로 인하여 군관의 기관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Part 7

부산진구

옛경제동맥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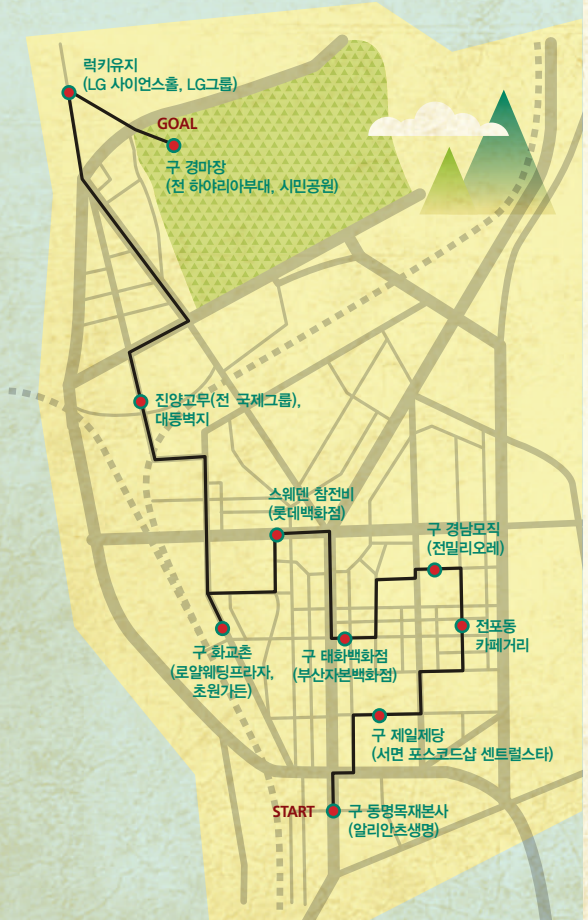
구 동명목재본사 ···› 구 제일제당 ···›
전포동 카페거리 ···› 구 경남모직 ···›
구 태화백화점 ···› 스웨덴 참전비···›
구 화교촌···› 진양고무, 대동벽지 ···› 럭키유지 ···›
구 경마장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부산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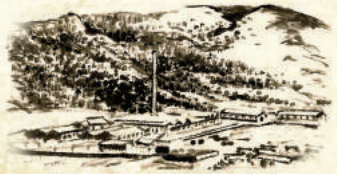
옛경제동맥길

부산진구는 임진왜란 당시 부산포구의 관문인 부산진성에서 유래하여 한국전쟁이후 부산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다. 서면 부전동을 중심으로 부산시내 각 방향으로 간선도로가 만들어지고 서면일대에 대형 백화점 및 쇼핑몰이 형성되었고, 금융, 상업, 정보, 유통시설이 밀집하면서, 미용성형위주의 의료특화거리도 조성되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코스약식설명

1.구 동명목재본사(알리안츠생명) — (480m, 도보 10분) — 2.구 제일제당 (서면 포스코드샵 센트럴스타) — (500m, 도보 10분) — 3.전포동 카페거리 — (550m, 도보 11분) — 4.구 경남모직 (전 밀리오레) — (600m, 도보 12분) — 5.구 태화백화점 (부산자본백화점) — (480m, 도보 10분) — 6.스웨덴 참전비 (롯데백화점) — (580m, 도보 12분)



1. 구 동명목재본사(알리안츠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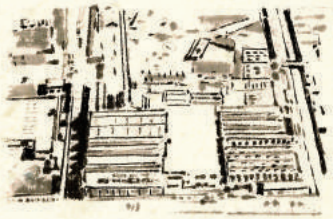
세계최대의 합판공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동명목재는 창업주 동명 강석진이 1920년 부산으로 와 가구공장 직공을 하면서 모은 돈 400원, 현재시가 4,000만원으로 1925년 좌천동에 동명제재소를 설립한 것이 동명목재의 시작. 1949년에 상호를 동명목재상사로 개칭후 동명목재는 1963년 부산진구를 떠나 남구 용당동에 정착함.

2. 구 제일제당 (서면 포스코드샵 센트럴스타)

눈처럼 하얀 백설표 설탕의 대명사로 1953년 여름 부산진구 전포동 743번지 일대 1,000평이 넘는 부지에 제일제당이 자리잡음. 11월 5일 공장에서 설탕이 생산되기 시작. 1953년 부전동에 설립한 '제일제당'이 근본 규모가 큰 공장건물 자체가 화제의 대상이었고 일본에서 들여온 최신식 설비 갖춤.

3. 전포동 카페거리

원래 부전동과 전포동은 공구, 철물 등 산업용품 및 자재를 파는 공구상가 거리였으나 2010년 이후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들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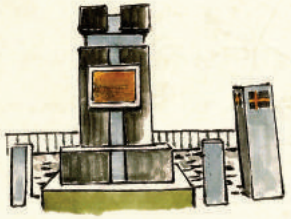


4. 구 경남모직(전 밀리오레)

경남모직은 1956년 대경직물로 출발하여 1959년 경남모직공업주식회사로 개명하였고 후일 한일그룹의 모태가 됨. 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8년 부산공장을 마산으로 이전 후 1986년 전포동 시대를 마감하였음. 그 자리에 한일레포츠 건물을 신축하였고 지금은 NC백화점 서면점이 들어서있음.

5. 구 태화백화점(부산자본백화점)

유통의 불모지였던 부산의 대표적 직영백화점으로 1982년 5월 서면에 문을 연 첫날 매출이 5,200만원에 달함. 이후 1995년엔 매출이 무려 2,312억원으로 지역 최고 백화점이 되어 당시 태화백화점 주변이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하였는데 서태지거리(서면태화백화점 지하철)와 서태후거리(서면태화백화점 후문)으로 불릴정도.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2001년 파산하게 됨.



6. 스웨덴 참전비(롯데백화점)

1950년 6 · 25전쟁 중 의료를 지원한 5개국 중 가장 먼저 의료지원단을 보낸 곳이 스웨덴으로, 1950년 서면 현 롯데백화점 자리에 학교설립인가가 난 부산상고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짓고 있던 학교를 UN군에 징발 당함. 그때 9월 부산상고 자리에 의료지원을 위해 참전한 영세 중립국 스웨덴의 적십자 병원이 설치되었고 이것이 바로 스웨덴 야전병원임. 1973년 부산상고 교정에 스웨덴 참전 기념비가 완공됨. 현 롯데백화점 앞 지하도입구에 서 있음.

(1,000m, 도보 20분) (1,300m, 도보 26분) (360m, 도보 8분)

7.구 화교촌 (로얄웨딩프라자, 초원가든) → 8.진양고무(전 국제그룹), 대동벽지 → 9.럭키유지 (LG 사이언스홀, LG그룹) → 10.구 경마장 (전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7. 구 화교촌 (로얄웨딩프라자, 초원가든)

1930년대부터 벌어진 중국 본토의 국공내전. 1945년경 중국 산동산 등지에서 남하한 중화민국(지금의 타이완)국적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룸.

8. 진양고무(전 국제그룹), 대동벽지

1963년 신발류 및 비닐제품 생산업체로, 부암동에 설립한 진양화학(진양고무). 대표브랜드는 회사이름과 같은 진양과 왕자표. 현 부산진구청 일대에 있었던 진양고무는 1963년 진양화학이란 상호로 출범. 설립자는 국제그룹 양정모회장으로 지역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시대변화가 맞물리면서 1992년 폐업.

9. 럭키유지(LG 사이언스홀, LG그룹)

1947년 서구 서대신동에서 화장품 제조업인 락희화학공업사 설립. 동동구리무로 회자되는 여성용 크림을 만든 것이 출발점. 1951년 부전동으로 이전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였고, 1955년 연지동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최초의 국산치약을 대량생산하게 됨. 1974년 럭키라는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현 LG화학의 모태가 됨.

10. 구 경마장(전 하야리아부대, 시민공원)

하야리아 지역은 전형적인 농지였으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들 수중에 들어가고 1930년 일본인 재력가들에 의해 3만여평의 부지에 경마장이 조성되기 시작함. 일본인 경마장으로 시작하여 태평양 전쟁때는 일본군 병참경비대와 외국인 포로수용소, 포로를 감시하던 군속교육대가 들어섰고, 해방후 한때 1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미군물자보급기지이기도 했던 곳. 지금은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빼앗긴 100년을 100년 동안 가꾸어나갈 부산시민공원이 들어섬.

범내골 로타리에 삼삼오오 모여들더니
어느새 30여명이 모여들었다.
범내골은 부산진구와 동구의 경계에 있지만
마을에 범내골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범내는 한자로 표기하면
호천(虎川) 또는 범천(凡川)이 된다.

#01

부산의 옛경제동맥

● 부산진구는 옛 동명목재본사를 비롯하여 제일제당, 경남모직, 럭키치약뿐만 아니라 태화백화점, 진양고무, 럭키치약 등 다양한 부산 기업의 태생지역이기도 하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외국계 기업인 알리안츠 생명빌딩이 들어서지만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중의 하나였던 동명목재의 본사가 있었던 자리였단다.
1925년 동구 죄천동에서 동명제제소를 설립하여 1945년 지금의 부산진구로 확장이전하였고, 1969년 수출 최고상을 받는 등 부산경제의 커다란 핵심이었다고 한다.

● 옛 동명목재본사를 뒤로 하고 구 제일제당으로 향했다. 현재 CJ제일제당의 모체로서 1953년 부전동에 설립한 제일제당은 그 당시 규모가 큰 공장으로 건물자체가 화제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부산진구 해설을 맡은 박성부 교수는 구 제일제당에는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직무실도 있었는데, 그런 흔적 하나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바뀌져 있어 아쉬움 남는다고 하였다.

● 전포동 카페거리에 들어서자 글자 그대로 다양한 카페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다. 번화가인 서면 1번가 맞은편 쪽에 있는 전포동 카페거리는 공구, 철물 등 산업용품 및 자재를 파는 가게들이 많은 공구상가 거리였으나 2010년 강서구로 이전한 후 하나 둘 개성있는 카페가 들어서면서 이젠 이색적인 카페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카페 주변에는 아직도 철물상과 공구상이 영업을 하는데 이들 공업소는 카페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묘한 재미를 더해준다.

전포동 카페거리를 지나가자 옛 경남모직 자리에 밀레올레가 보였다. 세월이 변함에 따라 부침이 많은 것이 기업이지만 경남모직은 부산에서 창립하여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전성기 부산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과 고용 부문 모두에서 높았다고 한다.

● 부산에 본점을 둔 몇 안되는 백화점이었던 태화쇼핑. 1982년 근대 유통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부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향토기업이자 부산유통업계의 자존심이었던 태화쇼핑은 이젠 쥬디스 태화라고 빌딩으로 변경되어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박해설사는 625참전비가 파주를 비롯하여 전국에 많이 있지만 부산진구에도 스웨덴 참전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리 많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부산의 가장 번화가 중의 하나인 롯데백화점 입구에 있는 스웨덴 참전비는 의료를 지원한 5개국 중 가장 먼저 의료지원단을 보냈다고 한다. 초대 병원장 칼 에릭 그로스대령이 지금의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자리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워, 부상병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까지 돌보았으며, 의료 수준이 낮았던 한국 의료진에게 선진의료기술을 전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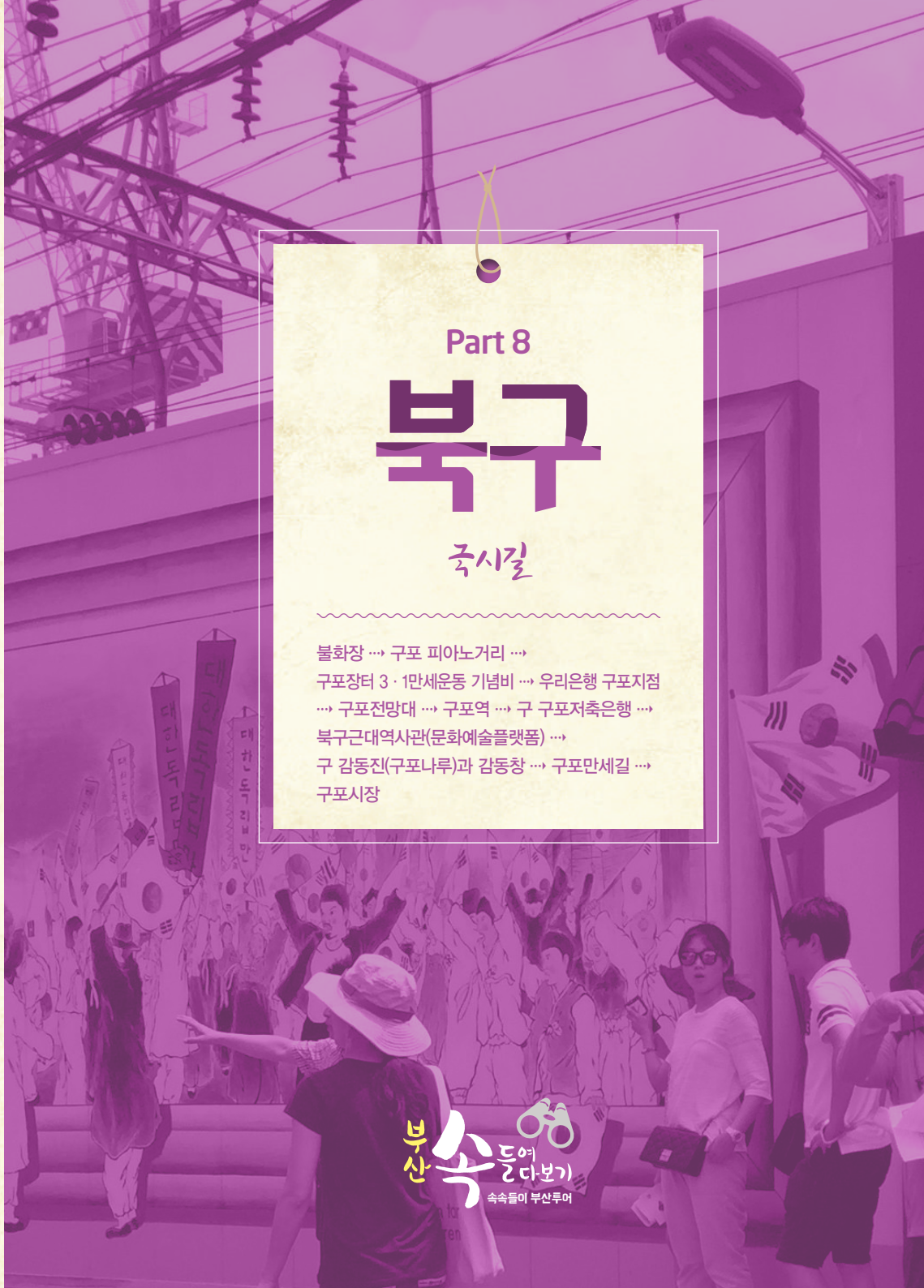
대한민국 근대 산업의 시작

● 부산롯데호텔을 뒤로 하고 구 부전동 화교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젠 그 흔전도 없이 사라졌지만 6.25전쟁과 그 이듬해인 1951년 무렵에 동해남부선 철도변에 화교민을 수용하기 위해 화교촌을 만들었다고 한다. 1930년대부터 벌어진 중국 본토의 국공내전(國共內戰)으로 1945년 경 중국 산동산 등지에서 남하한 붕화민국(지금의 타이완)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

● 옛 건물 중 일부만 남아있는 진양고무에 다 달았다. 진양고무는 사라지고 없지만 옛 영광을 기억이라도 되생기기 위해 부암 로타리에는 신발조형물이 전시되어 있다. 진양고무는 부산 신발산업의 상징적 인물인 영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이 1963년 신발류 및 비닐제품 생산업체로 부암동에 설립한 진양화학(진양고무)을 말한다고 한다.

● 이젠 부산 최대의 공원인 부산시민공원된 구 경마장에 도착을 하였다. 1921년에 시작된 부산 경마는 부산진의 해안 매축지에서 해마다 열리다 1931년 범전동 일대에 부산리경마장을 개장했으며, 그러다가 1945년 미군이 부산에 진주하면서 경마장은 부산 미군 기지사령부가 되었고, 1956년 미 하야리아 부대 동측 범전동 산2번지 일대 골짜기를 메워 경마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1957년 초 돌연 중단됐다. 기수들이 폭력배들의 등쌀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해버렸기 때문이다.

미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 주둔 56년 만에 2006년 8월 10일 공식 폐쇄 행사를 마치고 미 하야리아 부대가 부산진구를 떠나므로서 금단의 땅 하야리아 부대자리가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야리아라는 명칭은 미국 프로리다 주에 있는 하야리아 경마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아름다운 초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인디언족의 말이라 하기도 하고, 초대 부대장의 고향마을 이름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설이 있다.



Part 8

북구

죽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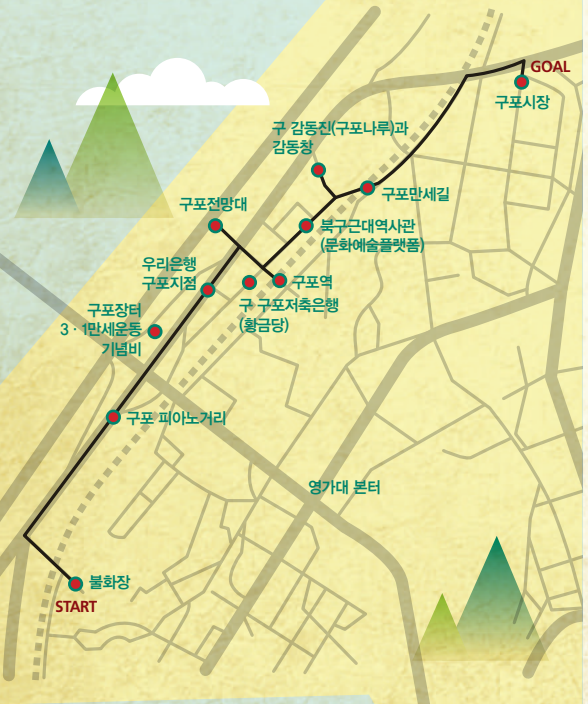
불화장 ···› 구포 피아노거리 ···›
구포장터 3 · 1만세운동 기념비 ···› 우리은행 구포지점
···› 구포전망대 ···› 구포역 ···› 구 구포저축은행 ···›
북구근대역사관(문화예술플랫폼) ···›
구 감동진(구포나루)과 감동창 ···› 구포만세길 ···›
구포시장

부산 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북구

국시길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북구는 조선시대 물류중심지로 큰 창고와 나루터가 있어 선박과 인부들이 많이 드나든 상공업도시였다. 경부선 철도가 지나면서 일제강점기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현재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생태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몰려온 피란민들이 싼 가격에 배를 채운 구포시장의 구포국수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으며, 구포장터 3 · 1만세운동도 매년 축제로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다.



코스약식설명

1.불화장 — (470m, 도보 10분) — 2.구포 피아노거리 — (230m, 도보 5분) — 3.구포장터 3 · 1만세운동 기념비 — (290m, 도보 6분) — 4.우리은행 구포지점 (1912년 개점) — (260m, 도보 5분) — 5.구포전망대 — (220m, 도보 5분) — 6.구포역 (1903년 개점) — (65m, 도보 1분) — 7.구 구포저축은행 (황금당) — (180m, 도보 3분)

1. 불화장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불교의 교리를 알기 쉽게 표현한 예배용 · 교화용 그림을 제작하는 장인. 돌을 곱게 갈아 석채기법으로 그려진 불화는 색이 선명하고 두터워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함.

2. 구포 피아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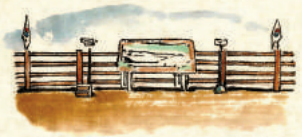
북구 구포삼거리에서 구남굴다리 입구까지 320m 구간에 피아노 명품길 조성. 2012년 구포 피아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구포역 주변 피아노 악기점과 중고 피아노 판매점 등이 밀집한 지역을 피아노 전문 특화거리로 만듦.

3. 구포장터 3 · 1만세운동 기념비

1919년 3월 29일 구포 장날 모인 장꾼 1,000여명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만세운동을 전개. 3 · 1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5년 8월 15일 건립됨.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내 고장 출신 선열들의 항일 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지역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며 후손들에게 항일 투쟁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건립됨. 부산광역시 북구청은 기념비 건립을 위해 1995년 4월 '구포 장터 3 · 1 운동 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함. 1995년 8월 15일 유관 기관장 및 유공자 유족, 일반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

4. 우리은행 구포지점 (1912년 개점)

일제 강점기 때 민족자본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세워진 은행인 '구포저축은행'은 구포 객주 출신의 거상 장우석이 뜻을 모아 설립하였고,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지점이다.



5. 구포전망대

낙동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구포전망대의 전경

6. 구포역(1903년 개점)

구포역은 1903년 개설후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로를 이용하여 선편에 도착한 물류를 부산과 서울로 철로를 통하여 보내는 중간역할을 함. 강변 정미소에서 반출된 곡류를 화물열차편으로 보내고, 1930년대 낙동강 제방이 축조되고 구포 다리가 가설되면서 김해, 진해, 사상, 양산 등에서 열차이용객들로 번성

7. 구 구포저축은행(황금당)

우리나라 최초 민족계 지방은행. 1911년 조선회사령의 공포로 구포저축주식회사가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되자 240여명 주주와 자본금 50만원으로 구포은행을 개편. 낙동강 일대의 물자 집산지였던 구포에 전국 최초 지방은행인 구포은행을 설립

(190m, 도보 3분) (115m, 도보 2분) (530m, 도보 11분)

8.북구근대역사관(문화예술플랫폼) 9.구 감동진(구포나루)과 감동창 10.구포만세길 11.구포시장

8. 북구근대역사관(문화예술플랫폼)

부산 북구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근대 역사관. 낙동강을 중심으로 물류 집산지로 명성을 날렸던 구포 나루터, 구포다리, 구포시장의 옛 역사와 함께 북구 지역의 근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음. 아트카페는 생활미술작품 전시 및 판매공간으로 운영되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9. 구 감동진(구포나루)과 감동창

감동진 나루터는 구포의 낙동 강변에서 김해시 대동면 대동수문으로 왕래하던 나룻배의 선창. 감동진 나루터가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수운의 요지로서 구포 감동진에 감동창 또는 남창 등 창(倉)이 설치됨. 남창을 중심으로 낙동강 변에서 동네 안쪽 한마당까지 구포장터가 형성되어 일찍이 구포는 상업이 발달함.

10. 구포만세길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9일 구포장터에서 1,200여명이 대규모 만세운동을 벌여 김옥겸 선생 등 42명이 옥고를 치른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만세운동이며, 의거의 주축이 주로 유림, 학생인 타 지역과 달리 상인, 노동자 등 서민 대중이 주도함.

11. 구포시장

구포시장은 1972년에 상설 시장이 되었고, 2004년 정이 있는 구포시장으로 명칭을 변경. 구포시장은 한국전쟁때 피난민들이 먹기 시작한 '구포국수'로 유명. 구포국수는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 쫄깃한 면발로 피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었고, 구포장(오일장)에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 할 수 있는 음식으로도 유명

구남역 만남의 광장에서 집결,
오늘은 연휴가 겹치고 날도 덥다보니 평소보다 사람들이 조금 적게 온듯한데
그래도 걷기에는 이 정도의 숫자가 딱인거 같았다.
평소보다 어수선함이 덜하고 집중이 되는거 같았어서.

#01

나 자신의 안일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투쟁

● 북구편의 첫번째 방문지 '불화장'에서 찾아뵌 인간문화재 '권영관' 선생님. 어릴때부터 선친의 길을 따라 불화를 그려오셨다는 선생님 마음의 수양을 오래하셔서 그런지 정말 얼굴이 맑으시고 광채가 난다는 것 같았다. 마음 수양하는데는 불화를 그리는것보다 좋은게 없을거 같다. 불화를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현실과 여러가지 힘든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게 현실.

● 피아노거리는 2012년 완공됐다. 원래 피아노거리는 구포가 아니라 양정에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양정의 땅값이 오르면서 주정차라든지 교통의 편의상 구포로 옮기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지금도 양정에는 악기사가 군데군데 남아있다. 아마 100% 다 옮겨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악기사들도 있는거겠죠?
엄청나게 많은 피아노 가게들을 보면서 요즘에 전자피아노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피아노들이 다 팔리기는 하는걸까 이 많은 가게들은 다 먹고 사는걸까?

● 길 건너편에 보이는 3.1만세운동기념비라는데 만세운동거리와는 조금 많이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어서 왜 여기에 있는건지는 알수가 없다고. 이런 부산 속 들여다보기에서 걸으며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기념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갔을텐데...

나 자신의 안일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하신 선열들을 기리며 잠시 숙연한 시간을 가져본다.
3.1만세운동기념비를 뒤로하고 구포역으로 향했는데 개인적으로 구포전철역 안에는 처음 들어가봤다. 구포전망대에서 보이는 뷰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 탁 트인 전경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거 같다. 구포다리가 생겼던 역사와 유래 북구편의 해설사 박성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중간중간 재밌는 퀴즈시간도 가졌다.

#02

독립운동자금을 모르고 경제활동의 기반

● 우리은행 구포지점은 원래 구포 객주 출신의 거상 장우석이 뜻을 모아 설립한 구포은행으로 처음 문을 열었고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경남은행-경남합동은행(대구은행과 합병)-조선상업은행(일본의 민족계 은행의 말살)-한국상업은행-한빛은행(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에서 무수히 이름이 바뀌어 가면서 지금의 우리은행 구포지점으로 안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독립운동자금을 모으고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돌아보며 새삼 역사공부를 다시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구포역 바로 앞에 있는 '황금당'은 구 구포저축은행으로 전국최초의 지방은행이 있던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금은방으로 변해버렸지만, 역사적으로는 정말 중요한 곳이다.

구포나루였던 이 곳이 이제는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우리의 근대사는 추억속으로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도 아파트 입구에 이 곳의 의미(구 감동진과 감동창 터)에 대한 글과 사진을 적어두니 한 번쯤은 읽어보고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다.

● 구포시장을 향해 가는 도중 만세도로가 나왔다. 마침 이날은 광복절이어서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의미를 더해주는 거 같았다.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가끔씩 느꼈던 불평불만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 일제시대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말 오래된듯하여 금방이라도 무너질듯한 아슬아슬함속에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가게들을 보니 힘든 시기를 견뎌온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모습같아서 마음이 괜시리 짠~~~~.

Part 9

사상구

강선대길

사상역(기차역) ··· 인디스테이션 ···
사상초등학교(사립명문학교 석주) ···
하강선대 ··· 바위언덕 ··· 상강선대 ··· 삼락천 ···
사상생활사 박물관 ··· 한내행복마을

사상구

강선대길

사상은 예로부터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으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잦아 상류에서 떠내려온 모래가 퇴적돼 저습지와 모래톱이 잘 발달한 곳이라 지명도 '모래사(沙)'를 사상(沙上)이다. 사상은 부산의 경제를 이끌었던 부산 최대의 공업지역이자, 공항과 항만, 육로, 도시철도가 입체적으로 연결된 서부산의 관문으로 1995년 북구에서 분리되었다. 낙동강 둔치의 자연생태계를 보유한 부산의 산업,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다.

코스약식설명

1.사상역(기차역) — (260m, 도보 7분) — 2.인디스테이션 — (570m, 도보 16분) — 3.사상초등학교(사립명진학교 석주) — (750m, 도보 5분) — 4.하강선대 — (600m, 도보 3분) — 5.바위언덕 — (600m, 도보 6분) — 6.상강선대 — (600m, 도보 10분)

1. 사상역(기차역)

1921년 경부선 철도가 사상역에 정차하게 되면서 역사를 건립하였고, 1958년 10월 30일 역사를 개수하여 현재의 역사 형태를 갖추게 됨. 사상역의 건물모양은 '一'자 형태로 박공지붕 형식의 붉은 벽돌을 쌓아 만든 단층 건물로 중앙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익당을 둔 전형적인 일본식 역사 건물임.

2. 인디스테이션

사상인디스테이션(CONTAINER ARTS TERMINAL)은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컨테이너아트터미널(CATs)임. 부산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컨테이너 27개로 이루어진 복합문화시설로 지상 3층의 건물 2개동으로 건립. 다목적 홀과 전시실로 구성된 '소란동'과 스튜디오실, 다문화센터, 레지던스, 사무실로 구성된 '도랑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젊음이 넘쳐나는 청년인디 문화 중심지로, 서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청년 인디 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함. 사상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 도시철도 사상역과 그리고 대형 아울렛과 가까이에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잠시 들려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춤, 노래, 예술과 같은 예술적인 행위들을 도심속에서 펼칠 수 있음.

3. 사상초등학교(사립명진학교 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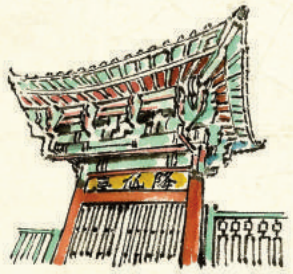
1910년 4월 1일 사림명진학교로 개교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겨 1920년 4월 1일 사상공립보통학교로 바뀌어 일제 강점기를 보냄. 학장, 모라, 감전, 삼덕, 괘법, 덕포초등학교 등 6개교가 사상초등학교에서 분리됨.

4. 하강선대

예전에 배가 드나들었던 포구인 덕포의 2곳의 당산중 사상초등학교 뒤에 있는 것이 '하강선대(下降仙臺)'로 일명 할매 당산이라 함. 강선대의 이름은 매년 음력 12월 1일에 신선이 하강하여 목욕하고 쉬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1700년 무렵 상강선대와 하강선대에 위치하고 있는 고목을 당산 나무로 삼고 언덕 위에 당집을 건립하여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빌어 왔으며, 그 유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예전 덕포 마을은 상리와 하리로 구분하였는데 상리 사람들은 할배 당산에서, 하리 사람들은 할매 당산에서 각각 제사를 지냄.

5. 바위언덕

덕포의 옛이름은 '덕개'이며 옛날에는 덕을 득으로 발음하였고, 덕개, 득개는 언덕개라는 말이며, 언덕에 있는 포구를 의미, 언덕 끝에 배를 대는 포구. 바위언덕은 커다란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전에는 소나무와 팽나무 숲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바위만 남아있게 됨. 이곳 바위에는 침식을 받은 흔적이 있어 바로 이곳이 해안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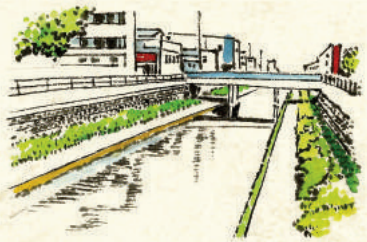


6. 상강선대

강선대는 신령스런 기운이 모인 곳으로, 해마다 섣달 초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늘에 복을 비는 제사를 베풀었고, 이때 부사에게 제수용 송아지 한 마리를 받으며 홍수나 가뭄, 전염병 및 우역이 돌 때, 이곳에 치성을 드리면 즉시 영험이 있었다 하여 1947년 11월 구건물을 헐고 새로운 제당을 건립. 지하철 덕포역 도로변에 있는 것이 '상강선대(上降仙臺)'로 일명 할배 당산이라 함.

(600m, 도보 2분) (600m, 도보 7분)

7.삼락천 8.사상생활박물관 9.한내행복마을



7. 삼락천

매연으로 뒤덮인 사상의 하늘과 패수의 악취가 코를 찌르던 삼락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낙동강 지류인 삼락천 샛강이 이어지는 괘법동 일대에서는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옛 흔적조차 쉬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부산 시민에게 낙동강은 생명의 젖줄로 특히 사상 지역일대에는 어렸을 적 자주 들었던 '재첩국 사이소'의 본거지임. 근대화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역자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삼락천 환경지킴이,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등 다양한 단체 활동으로 오염된 사상의 하천이 깨끗해짐.

8. 사상생활사박물관

1960~1980년대 낙동강 지역 주민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사상생활사박물관이 부산 사상구에 2016년 5월 6일 개관함. 사상 생활사박물관은 지상 3층, 연면적 641.5㎡ 규모로 전시실, 프로그램실, 주민쉼터 등을 갖추고 있으며, 5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음. 총 20억 6천 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14년 11월 착공. 1층은 주차장, 2층 문화마당터에서는 '꽃을 사랑한 여인과 갈대를 엮는 사나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3층 전시실에서는 옛 사람들의 생활용품을 선보이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전시가 펼쳐지고, 야외에서는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사진전 '그땐 그랬지'가 열려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겨볼 수 있음. 박물관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 휴관, 관람료는 무료.

9. 한내행복마을

덕포시장 인근 덕포동 한내마을 행복센터에는 복(福)이 있는 카페와, 한내마을 문화교실이 운영. '福이 있는 카페'는 주민들에게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매일 오전 10시 부터 밤 9시까지 문을 열고, 커피와 차 · 음료 등을 판매하며, 사업의 수익금은 모두 프로그램 운영 및 공익사업에 쓰임.

다른 의미의 사상누각(沙上樓閣)!
공단 지역인 사상에 유적이나 볼거리가 있을까? 이런 선입견은 이내 모래처럼 스러지고 말았다.
빼어난 절경을 자랑했던 '사상팔경'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다양성에 바탕을 둔 울퉁불퉁한 '젊은 사상'도 좋았다.

#01

사라진 '사상팔경'을 그리워하다

● 기차역인 사상역 앞에 한 달 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이날은 특히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고 있는 22명까지 가세했다. 어제의 역사를 걸으며 내일을 기약하니 더 좋았다.

사상역은 1921년 경부선이 정차하며 세워졌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형적인 일식 건물이지만 개보수가 많이 되어 등록문화재는 아니다. 이미숙 해설사가 사상에 대한 배경 설명에 나섰다. "사상은 상류에서 떠내려온 모래가 퇴적해 저습지와 모래톱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에도 '모래 사(沙)'가 들었다. "조선 시대에는 동래구 사천면이었습니다. 1866년 고종 3년에 사천면이 사상면과 사하면으로 나뉘며 사상면이 되었습니다." 사천부터 사상까지 이 고장이 모래와 강을 끼고 오래 살아왔음을 지명이 보여 준다.

이번에는 투어에 참가한 사상구청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이 나와서 지금은 사라진 '사상팔경'이 있었다고 아쉬워한다. 그중 몇 개 예를 들었다. 기러기 떼가 낙동강변에 내려앉는 '평사낙안(平沙落雁)', 흰 돛단배 위로 갈매기가 날고 석양과 어우러지는 '원포귀범(遠浦歸帆)', 갈대밭에서 게를 잡기 위한 횃불이 불꽃놀이를 연상시킨 '칠월해화(七月蟹火)' 등이다. 그 옛날 사상의 모습은 어땠을까,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1970년대 개발로 갈대밭과 백사장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지만 아쉽고 또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02

내일을 기약하는 청년 작가들

● 첫 목적지인 사상 경전철역 앞 광장의 사상인디스테이션으로 향했다. 알록달록하게 장식한 컨테이너 27개로 만든 건물이다. 지상 3층의 건물 2개 동으로 2013년 7월에 개관했다. 사상인디스테이션 임재환 코디네이터가 반갑게 맞이하며 이곳은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설명에 나섰다. "문화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되는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컨테이너라 다른 전시관에 비해 변형이 자유로워 공간적인 제약도 작습니다. 청년 인디 공연과 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불금파티가 열린다. 이 파티에 한번 참가하고 나면 왜 이렇게 젊어졌느냐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

여기서는 또한 청년작가들이 거주하며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임 코디네이터가 지나가는 말로 "컨테이너 건물이라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여름이면 아침에도 보통 섭씨 40도를 찍고 시작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번 요즘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03

도심에 남겨진 강선대

● 청년의 공간을 나와 점점 과거로 달려갔다. 사상초등학교 교정에선 싱그러운 초록의 플라타너스가 양팔을 벌리고 반긴다. 이 학교는 1910년 4월 1일 사립 명진학교로 개교했다. 그 시절 비석이 윗부분 일부가 사라진 채 서 있다. 1970년대에는 무려 100학급에 6천여 명의 학생이 다닌 적도 있었다니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다. 플라타너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심어진 게 1910년께부터다. 여기 플라타너스 열 그루도 학교와 세월을 함께했으니 나이가 100살이 넘었겠다. 한 시인이 이 나무들을 보고 "동화 속 램프의 거인 같다"고 표현했는데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사상에서 선녀의 흔적을 만날 것이라고는…. 조선 팔도 곳곳에 강선대(降仙臺)가 있다. 그 시절에는 선녀가 꽤 많이 내려왔던 모양이다. 하지만 도심에 강선대가 남은 곳은 드물다. 한 지역에 강선대가 두 군데나 있는 곳은 사상을 빼곤 없다.
사상초등학교 뒤편이 하강선대, 도시철도 덕포역 도로변이 상강선대다. 강선대마다 마을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고 신성시하는 당산(堂山)을 세웠다. 하강선대에 할매 당산, 상강선대에 할배 당산이 있다. 덕포 마을은 상리와 하리로 구분했는데 상리 사람은 할배 당산, 하리 사람은 할매 당산에서 각각 제사를 지냈다. 덩치 큰 바위 언덕이 병풍처럼 강선대를 에워싸고 있다. '덕포'의 옛 이름은 '덕개'다. 여기서 '개'는 포구를 뜻하는 우리말이다. 강선대 일대는 지금은 뭍이지만 낙동강 제방을 쌓기 전에는 배가 드나드는 포구였다.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 그리워진다.

#04

사라진 것들을 한자리서 만나다

● '재칫국 사이소~.' 재첩 양동이를 인 아낙이 외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하다. 삼락동에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재첩 거리'가 남았다. 삼락천을 비롯한 낙동강 갯벌에서는 원래 얼마나 많은 재첩이 났을까. 하지만 삼락천은 폐수 하천으로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 삼락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났지만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보인다.

삼락천 다리 건너편에 새로 문을 연 사상생활사박물관이 보인다. 지난 5월 6일 개관한 따끈따끈한 '신상' 박물관이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갈대 빗자루, 장어 갈퀴, 재첩 양동이가 옛 사상을 생각나게 했다. 고무신과 국제상사의 운동화는 이 모래톱에 불어온 근대화의 바람을 느끼게 해 주었다.

덕포시장을 지나 이날의 종착역인 한내마을 행복센터로 향했다. 사상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아 여기서 한국어 교실을 비롯해 관련 행사도 자주 열리는 모양이었다. 행복센터 마당에서 초청 가수 '얼그레이' 팀이 산울림의 노래 '너의 의미'를 부른다. 개발로 희생된 사상의 아픔이 느껴진다. 앞으로 갈 길이 보이는 것 같다.

Part 10

사하구

임진왜란길

윤공단 ··· 당집 ··· 비석군(선정비) ···
다대포 성터 ··· 다대샘터 ··· 다대교회 ···
다대활어재래시장 ··· 다대객사 ···
정운공순의비 ··· 몰운대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사하구

임진왜란길

사하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의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군사의 요충지로, 삼국사기에는 다대포에 왜인이 침범해 물리쳤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온다. 사하구는 천혜의 절경이 많기로 유명하며 그 중 하나가 몰운대가 있고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찬 다대포해수욕장은 매년 8월이면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이 '꿈의 낙조분수'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매일매일 새로운 록의 무대가 펼쳐진다.

코스약식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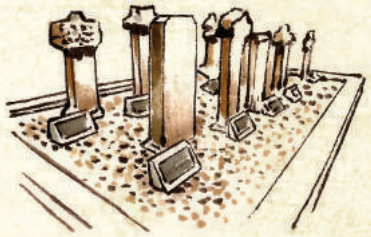
1.윤공단 — (200m, 도보 4분) — 2.당집 — (190m, 도보 4분) — 3.비석군(선정비) — (250m, 도보 5분) — 4.다대포 성터 — (110m, 도보 2분) — 5.다대샘터 — (118m, 도보 2분) — 6.다대교회(1923년) — (475m, 도보 10분)

1. 윤공단

윤공단은 1972년 6월 26일 지방문화재기념물 제9호로 지정됨. 임진왜란때 왜적과 싸우다가 순절한 다대첨사 윤흥신공과 함께 싸우다 순사한 군민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1766년(영조 41) 다대첨사 이해문이 다대객관의 동쪽에 설치한 제단. 이때 다대첨사 윤흥신은 동생 흥제와 군민을 이끌고 막강한 떼무리의 왜적과 싸우다가 장열한 전사를 하였음. 원래 이 단은 다대포 첨사영의 성내였던 지금의 다대초등학교에 있었던 것을 1970년 12월 5일에 지금 장소로 옮겨 세우게 됨.

2. 당집

윤공단 내에 있는 당집은 삼층 콘크리트 건축물로 1996년에 건립. 당사의 1층은 제왕당할매, 2층은 용왕, 3층은 산신의 거주처로 매월 음력 정월 초하루에 무속인이 제관이 되어 제를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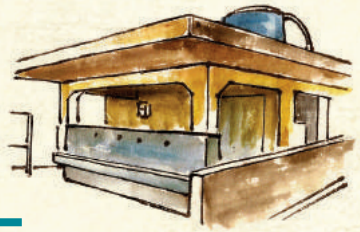


3. 비석군(선정비)

다대첨사, 관찰사 등 사하(옛 다대진)지역에 혜택을 베푼 인물들의 은덕을 칭송하는 선정비군. 대부분 군역 감면 등의 시혜내용을 담고 있으며, 혜택을 받은 군졸, 군뢰, 사령 등이 건립

4. 다대포 성터

1490년 건립된 다대포 성터는 조선 전기 경상좌도의 수군 진성 터로, 다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고, 대부분 주택의 축대나 담장으로 이용



5. 다대샘터

다대포에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한 때부터 주민 전부가 식수로 사용해 왔다. 수량이 무진장이기 때문에 종일 길어내어도 한밤중에는 물이 철철 넘쳐서 물줄기가 끊어진 일이 없었다. 상수도가 설비되기 이전까지의 다대포 사람은 모두 이 물을 사용했고, 다대주민의 공동 생명수였다.

6. 다대교회(1923년)

안명환 장로가 박창근 전도사와 함께 다대실용학교 건물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한용삼 선생의 헌금으로 15평 가량 목조 건물을 신축. 1923년 다대교회를 발족

(2,000m, 도보 40분) (2,600m, 도보 52분) (2,100m, 도보 4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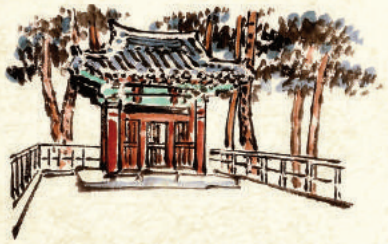
7.다대활어재래시장 → 8.다대객사 → 9.정운공순의비 → 10.몰운대

7. 다대활어재래시장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회 전문 시장. 자연산 활어, 어패류, 해산물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근처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어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음.

8. 다대객사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제 제3호. 조선후기 다대 첨절제사영에 있던 객사. 객사는 조선시대 관아건물의 하나로 전패를 보관하고 고을수령이 대궐에 망배를 드리던 곳임. 사신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함. 다대포진 객사의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1970년 몰운대로 옮겨지고는 산꼭대기에 벽체가 없이 서서 누대 같은 모습이 됨.



9. 정운공순의비

정운공 순의비는 1972년 6월 26일 지방문화재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다대동 산 144번지인 몰운대에 위치하고 있음.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을 도와 부산포해전에서 순절한 정운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석. 그동안 비석만 서 있었는데 1974년 부산시가 비각을 세웠으며, 이 비석은 높이 172㎝, 넓이 69㎝, 두께 22㎝ 규모

10. 몰운대

몰운대의 총면적은 506천㎡로 1972년 6월 26일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27호로 지정. 16세기까지 몰운도라는 섬이 있었으나,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흙과 모래가 퇴적되어 다대포와 연결된 부산의 전형적인 육계도. 몰운대 이름은 낙동강 하구에 안개와 구름이 끼는 날이면 그 안개와 구름에 잠겨서 섬이 보이지 않는다고 구름속에 빠진 섬이란 이름이 되었음.

다대포는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과 약탈이 잦은
변방 중 변방이었으며, 왜적 침공 루트이다.
이 지형을 잘 보면 다대포의 주산인
아미산 응봉봉수대와 그 밑의 윤공단,
다대진성(터), 야망대가 일직선 상에 놓이는데
윤흥신 첨사는 이 같은 지형을 이용해
임진왜란 첫날 왜군을 무찔렀던 거란다.

#01

낙동강 최남단의 군사 요충지

● 윤공단을 올라가는 계단은 보기에도 힘들여 보였다. 계단 하나 하나 올라가다 보니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왔다. 사하구편의 첫 번째 코스인 윤공단에서 부산 속 들여다보기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해설사를 소개하였다. 사하구편 해설을 맡은 조장현 교수는 왜와 싸운 윤흥신 장군에 비하면 이 계단을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해설을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다대첨사 윤흥신 장군의 충절을 기리고자 높이 마련한 단으로, 단 중앙에는 비를 세워 두어 장군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윤흥신은 선조 25년(1592) 부산에 상륙한 왜적이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후, 다대진을 공격하자 동생 흥제와 군관민을 이끌고 이들과 대치하다 전사하였다.
왜란이 끝난 후에도 이 일이 알려지지 않다가, 영조 37년(1761) 경사감사로 있던 조엄이 이 사연에 얽힌 자료를 찾아내어 조정에 올리니, 비로소 그의 충절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한다.

윤공단은 1970년 12월 5일 현 위치로 옮겨졌다. 본래는 윤흥신이 전사한 다대객관(전 다대초등학교 교내)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현창 시설을 크게 확장하면서 새 터를 잡았다. 지금의 윤공단 자리는 도로에서 제단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60m에 이르고, 울창한 솔숲이 짙은 녹음을 사시사철 드리우고 있어 외적과 맞서 싸우다 순절한 선열들을 기리는 현창 시설로는 아주 적절한 공간으로 느껴진다.

특히 제단으로 올라가는 60여m 계단 초입에 설치된 많은 선정비들도 윤공단의 현창 시설다운 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첨사 이승운, 첨사 이동식, 관찰사 이경재, 관찰사 홍종영, 진리 한광국, 관찰사 서헌순, 병조판서 민응식, 첨사 정제빈, 첨사 김정근, 겸목관 이득형, 겸감목관 고도성, 겸감목관 구정환 등을 기리는 14기의 선정비가 숲속에 나란히 세워져 있다. 도시 확장 와중에 제자리를 잃게된 비석들을 이곳에 모아둔 것이다.

● 윤공단 입구의 맞은편에 조그만한 비석이 하나 있다. 한관국불방비이다. 불망비 핵심은 사또 망배 폐단. 무슨 말일까.
천민이던 다대포 포민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신정다례를 정월 초하루에 지내지 못했다. 하루 전날인 섣달그믐에 지냈다. 초하루 새벽 고을 수령에게 절(망배)하는 풍습 탓이었다. 조상보다 먼저 사또에게 절할 수 없어 하루 전날 신정다례를 지냈다. 한광국은 분개했다. 신분 차별, 인간 차별에 분개한 한광국은 다대포에서 한양까지 그 먼 거리를 '아픈 몸을 이끌고 수차례' 찾아 부당성을 진정했다. 다대진부터 구폐하라는 조정 윤허가 떨어지자 봇물 터지듯 전국 포민이 면천 혜택을 받았다. 천민임을 나타내는 짚 머리띠며 허리띠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신정다례를 섣달그믐에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
세운 연도 다음 세 글자가 시선을 끈다. 포민립. 포민이 세웠다는 뜻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석을 세웠다는 말이기도 하다.
마지못해 세웠을 공경대부 귀부이수 송덕비보다 하급관리 방부원수 한광국불망비가 더 있어 보이는 이유다.

● 다대포성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조선 전기 경상 좌도의 수군 진성 터로서 이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원래 다대포성은 조선 초기 경상 좌도 부산포진 관할의 수군 진성으로서 낙동강 일대의 해안 방어를 하는 데 최일선있었으며, 규모는 둘레 541.8m, 높이 3.9m의 석성으로 동서남북으로 4대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젠 대다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쪽과 남쪽 성벽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대부분 주택의 축대나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1백30여년 전에 가뭄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가 흔적도없이 사라졌던 우물이 현대식 약수터로 복원된 다대샘은 다대포 주민들이 1860년대 당시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만든 우물로 1964년 이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도입되면서 폐쇄되었다고 한다. 박해설사는 상수도 설비가 없었을 때는 7백여세대 4천여 인구가 이 샘 하나를 식수로 사용하였고 어업용수까지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다대포의 젖줄이었다고 한다.

천혜의 절경 몰운대

● 다대샘 해설이 끝나고 이젠 많이 걸어야 하니 힘을 비축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심시하지 않게 다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고 참가자들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한다. 다대활어재래시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다대활어횟집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싱싱한 갓 잡아온 활어들이 넘쳐나는 곳으로 직접 흥정하여 생선을 고르는 재미가 있고, 또 바로 회를 썰어 주기에 선도 높은 질 좋은 생선회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곳이라고 하다. 다른 활어회 시장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곳인데도 참가자들이 많이 걸어야 하는 곳이길래 중간에 좀 쉬라는 뜻에서 해설을 하는 것이었다.

● 다대 활어재래시장에서 10여분 이상을 걸어서 몰운대 입구에 도착하였다. 다대곶 일대는 해류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야가 자주 가려지기 때문에 몰운대라 하였다고 한다.
16세기 이전 몰운대는 섬이었다가 점차 낙동강에서 밀려온 토사가 쌓여 육지와 연결된 것으로 추측한다. 이곳은 대마도와 가까워 일본과 교역하는 주요 해상로로 이용되었으며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여 해상 노략질을 일삼던 곳이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선봉장으로서 이곳 앞바다에서 전사한 녹도만호(鹿島萬戶) 충장공(忠壯公) 정운(鄭運)이 이곳 지명을 듣고 운(雲)과 운(運)이 같은 음인 것을 따라 "내가 이 대에서 죽을 것이다(我沒此臺)"라고 하였다는 고사가 있으며, 정운의 순절을 기리는 유적비가 있다. 1983년 북한의 무장간첩선이 이곳으로 침투하다 괴멸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도 몰운대 최남단은 군사보호지역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다. 언덕 전체에 소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동백나무가 울창했던 곳이다.

#03

시를 한수 읊고싶은 다대포 객사

● 몰운대 입구에서 또 5여분 걸으면 다대포 객사가 나왔다. 다대포 객사(多大浦客舍)는 수령이 부임할 때 의식을 치르고, 임금의 상징인 전패(殿牌)를 보관하여 초하루와 보름에 망배(望拜)[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하는 것]를 드리던 곳이며, 사신의 숙소로 이용되었던 조선 후기 지방 관청 건물이다. 벽체 없이 기둥만 남아 있어서 마치 누각 건물처럼 보인다. 객사 건물에는 가운데 정당(正堂)[가운데 건물]과 좌우에 날개처럼 익실(翼室)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정당 외에 좌우에 익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원래 다대포 객사는 다대초등학교 자리인데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다대진의 객사를 원래의 자리인 다대초등학교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교육적인 효과가 좀 더 컸을 것이다.

Part 11

서구

비석길

비석마을 ··· 비석마을전망대 ··· 소풍길 ···
기찻집 ··· 최민식갤러리 ··· 국수골목 ···
토성터 ···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동아대박물관) ···
전차실물 ··· 임시수도기념관(이승만대통령관저)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서구

비석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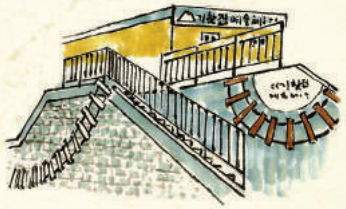
서구는 병풍처럼 둘러진 산과 푸른바다가 조화를 이룬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 정부청사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임시수도기념관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와 넘치는 인정으로 오랫동안 행정, 교육, 법조, 의료, 수산업의 중심지로, 해운대 등 동부산 지역의 비약적 발전에 상대적으로 주춤했으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조화시키고, 수산 · 물류산업 특화사업, 도시 재창조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코스약식설명

1.비석마을 (70m, 도보 1분) 2.비석마을전망대 (80m, 도보 2분) 3.소풍길 (100m, 도보 3분) 4.기찻집 (300m, 도보 6분) 5.최민식갤러리 (300m, 도보 6분) 6.국수골목 (500m, 도보 10분) 7.토성터 (150m, 도보 4분)

1. 비석마을

아미동 산 19번지일대는 감천고개에서 산상교회 주변으로 이어지는 지역.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던 곳. 1950년 6 · 25전쟁 발발이후 부산역일대를 중심으로 피난촌이 만들어짐.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던 이 지역에 피난민들이 움막으로 채워지고, 공동묘지의 비석들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계단과 담장을 만들게 됨. 현재는 비석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재생,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소통과 화합의 희망적인 밝은 마을로 바뀜.



4. 기찻집

산복도로변에 위치한 기찻집 예술체험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천연비누 및 쿠키, 커피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음. 작가작업실, 프로그램 체험실, 주민쉼터공간을 갖추고 마을꾸미기 교실, 서각 교실, 카페 디저트 만들기 교실, 미니어쳐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음.

2. 비석마을전망대

산복도로 아래 부산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3. 소풍길

예전 초등학생들이 소풍가던 길의 터가 남아 있음.

5. 최민식갤러리

최민식 선생(1928~2013)은 평생 앵글을 '사람'에 맞춰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온 작가로, 특히 전쟁과 가난으로 굴곡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감 없이 기록해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1964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한 총 14권의 사진집의 제목은 '인간'이었으며, 2013년 55년 동안 활동하면서 남긴 작품과 에세이를 묶어 '휴먼선집'을 냄. 작가의 생전의 뜻에 따라 유족들이 제공한 유품과 국가 기록원에 소장중인 1960~1970년대 서민들의 생활상이 담긴 희귀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6. 국수골목

예전 국수골목터가 간판으로만 남아있음.

7. 토성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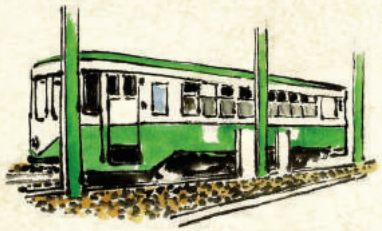
아미동에 있었던 옛날 화장장 부근을 중심으로 아미골 아래로 축조되어 오늘날의 토성중학교 부근을 통과함. 반월모양의 성은 1906년 일본거류민단에 의해 부산고등여학교가 현재의 토성중학교 자리에 지어질 때부터 파괴되어 가다가 토성국민학교와 그 외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취를 잃고 터만 남게 됨.

(80m, 도보 2분) (480m, 도보 10분)

8.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동아대박물관) 9.전차실물 10.임시수도기념관(이승만대통령관저)

8.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동아대박물관)

1950년 5월 18일부터 1953년 8월 15일 까지 부산은 서울수복 기간을 제외한 1,023일 동안 임시수도가 됨. 그 기간 동안 주요정부기관은 부산으로 옮겨왔고,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임시정부청사가 됨. 현재는 동아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문화재 41호로 지정



9. 전차실물

서구 부민동 동아대학교에 있는 부산에서 마지막까지 운행한 전차. 일제 강점기 부산전차노선은 온천장을 출발하여 동래~서면~부산역~옛 부산시청~재판소를 경유하여 구덕운동장 전차 종점까지 운행. 전차운행이 중단된 후 1969년 2월 동아대학교가 부산 전차를 한국 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로 부터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구덕캠퍼스 야외에 보관.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부민캠퍼스 이전 및 임시수도기념거리 조성사업에 맞춰 일반 시민 개방. 현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내에 전시되어 있음.

10. 임시수도기념관 (이승만대통령관저)

1926년 8월에 지어진 기와집으로서 경남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되었던 2층 목조건물. 6 · 25 전쟁 당시 3년간 부산이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을 때 대통령 관저로 이용 된 곳. 기념관에는 임시수도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의 유품을 중심으로 하는 소장품 152점이 여섯 개 방에 전시되어 있음. 전시실은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치의 최종결정이 이루어진 실제 장소라는 점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대통령의 집무실과 응접실 등을 당시의 분위기 그대로 재현하였음. 또한 이곳이 대통령 내외와 수행비서들의 생활공간이기도하기 때문에 내실, 거실, 손님 방, 식당과 부엌 등에서는 검소하고 소박한 대통령 내외의 일상적인 면들도 엿볼 수 있음.

봄비 치고는 너무 많이 내려 슬며시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하늘은 어김없이 개었고, 세상의 꽃들은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
부산 서구 아미동 산상교회 입구에 낯선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투어를 마치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부산에 살면서도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01

비석마을 ··· 최민식 갤러리 ··· 국수골목

● 감천문화마을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인접한 비석마을은 잘 모른다. 세상사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진짜 여행은 뜨기 전에 가야 한다. 산상교회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하는 출발지이다.

● 비석마을의 유래에 관해 먼저 이야기를 들었다.

아미동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화장장과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다. 왜 하필 여기일까. 아마도 바다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죽어서나마 자기네 고향인 일본 쪽을 보고 싶어서…. 한국전쟁이 터지자 인구 30만~40만이었던 부산이 갑자기 인구 100만에 육박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평지에 살 만한 땅이 없으니 점점 더 산으로, 결국 묘지까지 올라왔다. 산속이든 묘지 위든 우선 살아야 했으니까. 묘지 위에다 비석과 상석을 사용해 집을 짓고 살며 이 마을이 만들어졌다. 처음의 천막집은 판잣집으로, 다시 루핑집과 슬레이트집을 거쳐, 양옥집으로까지 발전했단다. 투어의 단골, 이미숙 해설사가 출발하기 전에 "이 동네에는 어르신이 많이 살아 기침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아주 조용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했다. 감천문화마을이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 비석마을의 좁은 골목을 따라 조심조심 걸으며 그 흔적을 만났다. 각진 상석이나 비석은 가파른 계단의 디딤돌로 쓰였다. 옹벽이나 집의 주춧돌, 담장, 화분 받침대로까지 활용되는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 이사를 했을까" "연탄은 또 어떻게 날랐을까" "물 뜨러 다니는 게 일이었겠다"라고 한마디씩 한다. '비석문화마을 스케치북'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윤지선 씨는 역시나 이 동네 살면서 물을 여다 먹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자갈치시장쯤에서 물을 이고 오면 출렁대서 집에 오면 반동이쯤 있고, 몸은 젖어 종일 물을 길어도 4동이밖에 안 되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 좁은 골목을 몇 십 명이 쏘다니는 게 사실 좀 미안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가라고 손짓해 주신다. 모든 걸 다 내주는, 우리 어머니의 표정이다.

이윽고 전망대에 섰다. 민주공원 충혼탑, 용두산공원, 광안대교, 영도다리, 자갈치까지 시원하게 다 보인다. 이때 참가자 중에 한 분인 정남서 씨가 갑자기 해설사로 나섰다. 이게 '속속들'의 매력이다. "1967년 당감동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화장장은 아미동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화장을 하고, 재를 함에 넣기 전에 넘는 곳이 아미동 까치고개입니다. 죽은 사람들 잿밥을 뿌려 까치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까치고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삶과 죽음은 고개 하나 넘는 정도의 차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전망대 아래는 최민식 갤러리다. 최민식은 서민의 고단한 삶을 사진에 담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자갈치시장에서 생선을 팔다 말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 어머니의 사진이 뭉클하다. 외다리로 부산일보를 돌리는 신문팔이 청년의 사진은 언제 봐도 감동으로 다가온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국수골목에는 6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골목분식'이 지키고 있었다. 근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티베트 불교 사원인 광성사도 보인다. 비석마을에는 2012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시행되며 마을공동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단다.

#02

토성터 ··· 부산임시정부청사 ··· 임시수도기념관

● 아미동 고개에서 내려오면 토성동이다. 한 번도 토성동이라는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토성동은 삼국 시대 또는 조선 시대의 토성이 있던 곳이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했단다. 도시철도 토성역 근처에 토성 터 표지판만이 외롭게 서 있다. 토성은 면적이 3천~4천 평이나 되었단다. 하지만 학술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종 건물과 시설이 자리 잡아 어느 때 만든 토성인지 영영 알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바로 옆 부민동 동아대 캠퍼스에서는 과거 부산에서 운행했던 전차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차는 부산, 서울, 평양 3곳에만 있었다. 이 전차 실물은 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단다. 지금 만약 부산에 전차가 다닌다면 어떨까. 부산에 전차가 다니는 모습이 낭만적으로 그려진다.

현재 동아대 박물관으로 활용되는 건물은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였다. 1950년 8월 18일부터 부산은 1천23일 동안 임시수도였다. 경남도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이 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가 되었단다.

마침 박물관 앞마당에서 우연히도(?) 정은우 관장이 지나가다 '속속들'과 조우했다. 정 관장은 "근대 건물을 박물관으로 이용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부산의 자랑거리인 건물이다. 야간 경관 조명을 해서 밤에도 아름다우니 데이트 장소로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한다.
동아대 박물관은 볼 게 너무 많아 다시 와야겠다.

● 이날 마지막 목적지는 임시수도기념관. 여긴 지금 이맘때 꽃필 때가 가장 아름답다. 하광범 문화해설사는 "메러디스 빅토리아호가 흥남 부두에서 1만 4000명의 피난민을 태워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는 날까지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소개한다. 미군은 아이들 이름을 임시로 김치 1~5로 지었다. 김치5는 만 66세가 된 이경필 씨로 거제도에서 지금도 가축병원을 하고 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평화사진관', 어머니는 '평화상회'라는 상점을 했단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투어를 마치고 '유쾌한 주물럭'에서 맛난 점심 도중에 갑자기 부산대 의대 중창동아리 '밀라스'의 멋진 공연이 열렸다.
깜짝 공연은 속속들 답사 재미의 화룡점정. 참가자 장웅길 씨는 "외국에는 이런 도시 투어가 많은데 투어에 참여하면 그 도시에 대한 많은 걸 알 수 있다. 외국인, 특히 일본인이 오늘 같은 투어에 참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Part 12

수영구

좌수영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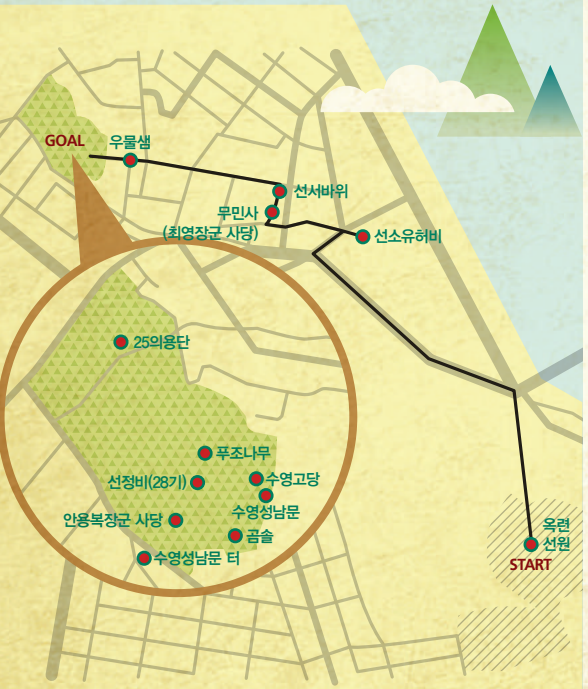
옥련선원 ···› 선소유허비 ···› 선서바위 ···›
무민사(최영장군 사당) ···› 우물샘 ···›
수영성남문 ···› 수영고당 ···› 곰솔 ···›
선정비(28기) ···› 푸조나무 ···› 안용복장군 사당 ···›
25의용단 ···› 수영성남문 터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수영구

좌수영길

수영구는 조선시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던 곳으로 작은 어촌에 불과했으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시사철 관광객이 북적이는 지역이다. 수영의 문화시설로는 KBS, MBC 부산문화방송국과 광안리해변 야외상설무대,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으며, 수영의 자랑 10가지는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과 바다빛 미술관, 수영사적공원,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광안리어방축제, 부산불꽃축제, 금련산, 남천민락횟촌, 수영강과 수변공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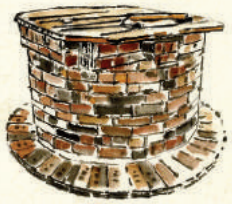


코스약식설명

(1,700m, 도보 34분) 1.옥련선원 → (360m, 도보 7분) 2.선소유허비 → (160m, 도보 3분) 3.선서바위 → (480m, 도보 10분) 4.무민사(최영장군사당) → (60m, 도보 1분) 5.우물샘 → (20m, 도보 1분) 6.수영성남문 → (100m, 도보 2분) 7.수영고당 → (120m, 도보 2분) 8.곰솔

1. 옥련선원

1635년(인조 13년) 해운선사가 옥련암을 개칭하였으며, 1976년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옥련선원으로 개칭함. 1992년 50척 높이의 미륵대불을 세웠으며 미얀마 고승 우의자난다 스님이 가져온 세존 진신사리 12과와 미륵 삼부경을 봉안한 유서 깊은 곳. 또한 한국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찰로 1998. 10. 17 전통사찰 제28호로 지정. 삼국시대의 마애미륵석불과 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되는 부석불석상 등 여러 가지 탱화가 있음.



5. 우물샘

우물 추정 연대는 통일신라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발굴이 이뤄졌다. 성터와 배수로, 제방, 그리고 우물 4기가 세상에 드러났다. 성터는 동래고읍성 성터였다. 동래에 읍성을 쌓기 전 망미동에 읍성이 있었다. 그걸 동래고읍성이라 부른다. 우물 4기 중 2기를 복원했다. 통일신라 절반을 복원했다.

2. 선소유허비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영의 선소가 있던 곳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며, 일반적인 비석의 모습이 아니라 큰 돛의 형태에 위쪽에는 노계 박인로의 시 「선상탄」을 적고, 아래쪽에는 선소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추정 사유를 적어놓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에 1988년 현대에 건립하여, 비를 통해 이 지역이 수영성의 동문 쪽에 위치한 선소이었다는 점을 알림.

3. 선서바위

무민사 뒤 바위가 진원이며, 바위는 한 칸짜리 황토방 크기로 큼지막함. 수영 25의용단이 피로써 맹세한 곳

4. 무민사(최영장군 사당)

무민은 고려 말 최영 장군의 시호(생전 백성을 내 자식처럼 여김). 왜구를 크게 무찌른 최영 장군의 영신을 모시는 사당 무민사 옆에는 나라를 수호한다는 뜻의 수호 경로당이 있음. 언뜻 들어도 군사적 느낌을 주며, 실제로도 군사적 의미가 있음.

6. 수영성남문

아치형으로 쌓은 홍예문으로, 원래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남문으로 세워졌으며 1692년(숙종18) 좌수사 문희성이 수영성을 중수할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됨. 수영성은 조선시대 낙동강 동쪽에서 경주까지 우리나라 남해안을 방비한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영이 있던 곳. 수영성은 동서남북 네곳에 성문이 있었고 동문을 영일문, 서문을 호소문, 남문을 주작, 북문을 공진이라 하였는데, 남문이 6칸으로 가장 규모가 컸음.

7. 수영고당

수영동의 전통시장인 팔도시장에서 서쪽을 향하여 언덕으로 올라오면 수영성 남문(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있고, 하마비를 지나 남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 작은언덕위에 신당이 있음. 신당을 중심으로 양옆과 뒤쪽으로 돌담이 가지런히 쳐져 있으며, 앞쪽은 철책으로 담이있고, 평소에는 신당의 문이 잠겨있음. 신당 앞에 작은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 여기에 술과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냄. 신당 앞에 오래된 곰솔나무가 있으며 신목으로 여겨 여기서도 간단한 제사를 올림.

8. 곰솔

곰솔은 400년이 넘는 거대한 나무로 줄기가 곧게 하늘로 뻗어 높이가 27m에 달함. 껍질무늬는 거북등처럼 갈라져 소나무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줌.

(50m, 도보 1분) (250m, 도보 5분) (200m, 도보 4분) (300m, 도보 6분)

9.선정비(28기) 10.푸조나무 11.안용복장군 사당 12.25의용단 13.수영성남문 터

9. 선정비(28기)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영의 옛터로, 좌수영의 총사령관인 수군절도사 정3품 무관으로서 통칭 수사라 하였으며, 낙동강 동쪽에서 경주에 이르기까지 해안방어를 수행함. 여기 33기 비석은 조선시대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 27년(1890) 사이에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중 공덕을 칭송하는 선정비이며 좌수영성지 정비 및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성 남문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재임 연도순으로 새롭게 단장함.

10. 푸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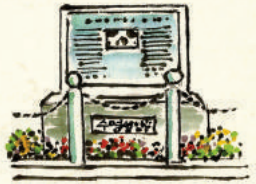
곰솔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30m를 가면 나무 둥치의 울퉁불퉁한 혹이 기이한 모습을 띤 수관이 넓은 푸조나무를 볼 수 있음. 나무 가운데 요철이 심한 본줄기가 서있고 땅에서 1m 높이 정도에서 줄기가 갈라져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꼬여있는 듯함. 나무 윗부분의 끝이 땅과 인접해 나무 아래로 들어가려면 머리를 숙여야 함. 15m의 큰 키를 자랑하는 푸조나무는 수관도 15m에 달하고 가지가 전체적으로 풍성하면서 땅을 향해 완만하게 퍼져 전체적으로 위엄 있는 모습.

11. 안용복장군 사당

독도 수호의 대표적 인물인 안 장군은 조선시대 부산 동래 수군 출신으로 일본 어민이 울릉도 인근에서 고기잡이하는 것을 보고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 일본으로 건너가 막부로부터 울릉도 ·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받아냄.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67년 안용복장군 공원 내 면적 337㎡ 규모의 안 장군 사당에 동상과 충혼탑을 건립해 매년 4월 18일 제향을 지냄.

12. 25의용단

임진왜란 때 수영 지역에서 7년간 유격전으로 왜군에 항전한 25인의 의병을 모신 제단으로, 지정 면적은 7,518㎡. 임진왜란이 일어난 당시, 경상 좌수사 박홍이 왜적과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자, 이후 지속적으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한 왜군에 대항하여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25명의 수군과 성민을 기리는 곳.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됨.



13. 수영성남문 터

지금의 수영성 남문 위치가 조선시대 좌수영성의 남문 위치와 달라, 당초 남문의 설치지인 수영동 286-1번지에 인접한 수영동 297번지에 부산시 사적편찬위원에서 2.4㎡ 규모의 표석을 세운 것이다. 1972년 6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수영성 남문은 현재 수영사적공원의 입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옛날 조선시대에는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성의 주문 역할을 하였다.

도심속에 역사의 현장이 보전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찾고 알아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제 한발 한발 내딛으며 그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자.

#01

수영구의 또 다른 명소 옥련선원

● 예상보다 훨씬 일찍, 투어 시작 50분 전에 도착하였으나 벌써 3명이 먼저 옥련선원 입구에서 인사를 한다.
용기종기 투어 참가객이 모여들더니 10시 정각에 첫 번째 코스인 옥련선원으로 향했다.

옥련선원의 일주문에서 오늘의 해설사인 이미숙 선생의 유창한 해설이 시작되었다. 옥련선원의 정확한 창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670년 원효대사가가 백산사로 이름을 정했다는 설이 있으며, 910년에 최치원 선생이 백산사에서 은둔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백선사는 1635년(인조13년) 해운선사가 옥련암을 개칭 하였으며, 1976년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옥련선원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옥련선원이 있는 백산은 동래 지역의 진산(鎭山)으로 지역민의 신앙의 장소였다. 백산의 관덕암은 특히 자손 번창을 위한 영험 있는 기도처였다고 전해지며 관덕암 마애 여래상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백산은 중요한 군사 기지였다는 해설이 곁들여 진다. 조선시대 경상 좌수영의 군사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코스에서 빠져 있지만 백산의 정상에는 적을 살피는 누대라는 첨이대가 있었다고 한다.

#02

화사한 햇빛과 도심속의 숲

● 두 번째 코스인 선서유허비를 보기 위해서는 옥련선원의 담벼락을 돌아가야하는데, 이 길은 평단한 길이라서 도심 속의 숲길을 걷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2월인데도 불구하고 화사한 햇빛과 도심에서 만끼하지 못하는 울짱한 숲 길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다.

수영강에서 30여m 떨어진 수영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 선소 유허비'가 있다. 1988년 4월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지역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세운 기념비다. 유허비 뒷편에는 '좌수영은 경북 영해에서 낙동강까지의 해상을 방수한 본영으로, 이 선소에는 전선 3척, 병선 5척, 귀선(거북선) 1척과 사후선 12척이 주둔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현장은 매립되어 옛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기념비라도 있어 이곳이 옛 선소였다는 것을 알게끔 한 것이 다행이다.

부산 수영구 좌수영성지에 무민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곳에 '가림나무'와 '선서바위'가 있다는 걸 아는 이는 더욱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설 나부랭이 정도로 치부해온 우리였기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임진왜란 때 동래성과 부산진성동이 모두 함락되는 위기에 처하자, 수영성의 경상좌수사 박홍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때 수영성의 수군과 성의 주민 25명은 성문 밖의 선서바위에 모여 "싸우면 이겨서 살 것이요, 싸우지 않으면 망하리로다. 나라의 존망이 경각에 있거늘 어찌 삶을 구하여 산야로 달아날 것인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리라." 하고 피로 맹세한 후 바다와 육지에서 왜적을 상대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무민사는 고려말 왜구를 크게 무찌른 최영 장군의 영신을 모신 사당으로, 선서바위 바로 앞에 있다. 원래 이곳의 강신 무녀가 최영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을 1963년 주민들이 사당으로 만들어 매년 제를 지내고 있다. 사당은 1.3평 정도로 볼품 없지만 그 정신은 호국의 숨결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임진왜란 때 스물다섯 명의 '붉은 의용단'이 끝까지 저항한 정신적 힘도 이런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03

수군들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소나무

● 조선시대 동 · 남해안을 방어했던 경상좌수영이 있던 수영성의 남문이다. 조선 숙종 18년(1692)에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지은 시기는 알 수 없다. 지금 남아있는 성문은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옛 수영초등학교 자리)에서 옮겨온 것으로, 1993년 보수하였으며 현재 수영공원의 정문 구실을 하고 있다.

무지개 모양으로 쌓은 문(홍예문) 양쪽 옆에 개 조각상인 '박견(拍犬)'을 만들어 놓아 왜구를 감시하던 성의 임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좌수영지』에 의하면 4개의 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문 옆에 조각상을 배치한 것은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 수영남문으로 들어가면 오른편 작은 언덕 위에 신당이 있다. 신당은 민간신앙의 대상 신인 할머니의 신위를 모셨는데, 송씨할매당, 수영고당(姑堂), 산정머리할매당, 수영성내수호신당, 성주신당 등으로 불린다. 신당 앞에 작은 직사각형의 시멘트 제단이 만들어져 있어 여기에 술과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신당 옆 많은 나무들 가운데 가장 크고 위엄있고 신령스러운 소나무가 곰솔로서 수준의 수호신이었다. 즉, 군신목으로 당시 수군들은 신령이 싯든 곰솔이 군선과 군사를 지켜준다고 믿었다고 한다.

수영성의 선정비는 33기로서 조선시대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 27년(1890)사이의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중 공덕을 칭송하는 선정비이며 좌수영성지 정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성 남문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이곳에 모아 재임년도순으로 새롭게 단장, 정비하였다고 한다.

●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에 대한 유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을을 보호해 주는 신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에 할머니의 넋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놀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믿으며, 지신목(地神木)[땅의 신이 깃든 나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가운데 살아왔으며, 민속적 ·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11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 안용복 장군은 조선 숙종때 동래부 좌천동 출신으로 좌수영 수군의 노젓는 병사에 속해있던 군졸이었다고 한다. 숙종 19년(1693년)과 22년(1696년) 2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탈한 왜인들을 몰아내고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당시 막부로부터 "일본인의 울릉도와 독도해역 어업행위를 영구히 금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아내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약 받고 돌아왔다. 그렇게 돌아온 조국에서 그는 허가 없이 국경을 넘은 혐의로 2년형을 살았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일본에 건너가 대마도에 유폐돼 50여 일간 뱀을 잡아먹으며 버티면서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67년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는 공원 내 면적 337㎡ 규모의 안 장군 사당에 동상과 충혼탑을 건립해 매년 4월 18일 제향을 지낸다.

25의용단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당시, 경상 좌수사 박홍이 왜적과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자, 이후 지속적으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한 왜군에 대항하여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25명의 수군과 성민을 기려 세운 단이다.

Part 13

연제구

거칠산국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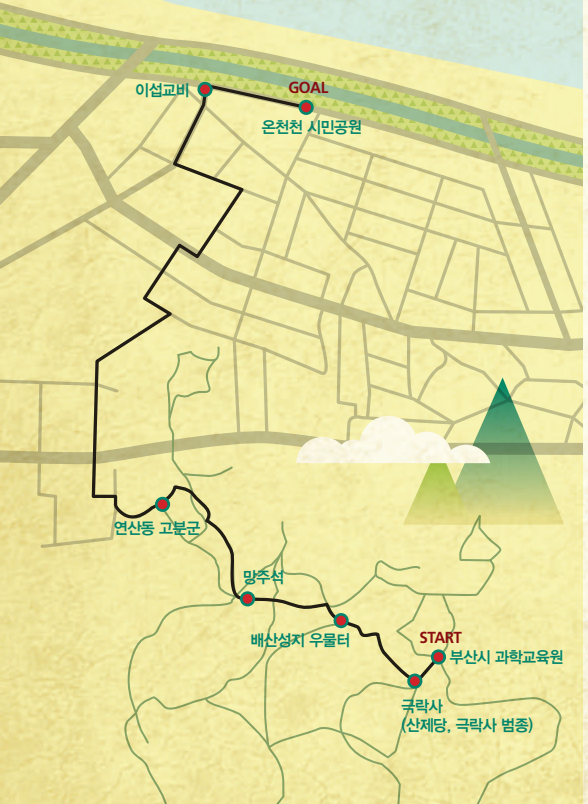
부산시과학교육원 ··· 극락사(산제당, 극락사범종) ··· 배산성지 우물터 ··· 망주석 ··· 연산동 고분군 ··· 이섭교비 ··· 온천천 시민공원

부산 속 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연제구

거칠산국길

연제구는 부산 16개 구 · 군 가운데 부산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1998년 부산시청이 연산동으로 이전하면서 명실공히 연제구는 부산의 행정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연산동고분군은 부산지역 유일의 삼국시대 고총고분군으로 능선을 따라 대형 봉분을 가진 무덤 10여기가 일렬로 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금정구와 동래구를 거쳐 연제구를 통과하는 온천천으로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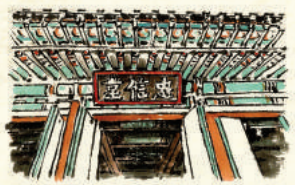


코스약식설명

1.부산시과학교육원 — (300m, 도보 6분) — 2.극락사 (산제당, 극락사범종) — (200m, 도보 4분) — 3.배산성지 우물터 — (200m, 도보 4분) — 4.망주석 — (300m, 도보 6분) — 5.연산동 고분군 — (1,200m, 도보 14분) — 6.이섭교비 — (240m, 도보 4분) — 7.온천천 시민공원

1. 부산시과학교육원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인재육성과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교육, 교원연수, 과학교육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며, 다양한 과학행사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본관 건물에는 기초과학, 생명과학, 우주과학, 첨단기자재, 실험실, 투영실, 관측실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음.



2. 극락사 (산제당, 극락사범종)

1988년 5월 15일 연산동 토박이 주민들이 산제당을 중수하고 찬조금 내역을 현판으로 기록하여 처마밑에 붙여 놓음.

3. 배산성지 우물터

배산은 모양새가 술잔을 거꾸로 엎어 놓은 것 같아 잔뫼산으로도 불림. 배산 정상 아래의 우물터는 신라초기 배산을 중심으로한 연산, 망미일대 거칠산군이 있던 배산성지 주변의 것으로 추정되며, 이 우물에서 솟아난 물이 유일한 식수원으로 활용됨.

4. 망주석

망두석 · 망주석표 · 석망주라고도 하며, 줄여서 석주 또는 망주라고도 함.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세종 때까지는 전죽석이라고도 불렀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망주석으로 통일시킴. 그 기능은 분묘가 있는 곳을 멀리서 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웠던 표지.

5. 연산동 고분군

부산지역의 유일한 가야 무덤으로 배산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무덤으로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2호로 지정. 배산(盃山)의 북쪽 아래에서 동래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남아 있는 이곳의 옛 무덤은 모두 11기에 이름.

6. 이섭교비

이섭교는 지금은 없어졌으나, 1694년(숙종20)에 지금의 낙민동, 안락동에서 연산1동으로 건너갈 때 건너야 하는 온천천에 놓여 있던 3개의 무지개 모양의 돌다리로 이섭교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 비석은 윗부분에 얹는 개석이 없어 머리 부분이 반달꼴로 되어 있음. 높이 235cm, 폭 105cm, 두께 28cm의 크기인데, 부산지방의 기념비 가운데 큰 것에 속함. 돌다리를 놓는 일에 참여한 사람의 직책과 성명, 그리고 협력한 각 면의 계에 대한 기록이 있어 향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7. 온천천 시민공원

금정산 범어사 계명봉 아래 계곡에서 발원하는 온천천은 금정, 동래, 연제 3개구를 통과해서 약 14.1㎞를 흐르다가 수영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서 수영강과 합류함. 각종 쓰레기와 악취로 버려진 온천천을 연제구에서 1998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둔치에는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22종의 각종 시설물과 도심속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1일 평균 13,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

장미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계절, 기다리던 셋째 주 토요일이 돌아왔다.
연제구는 부산 16개 구 · 군 중 막내. 지난 1995년에 동래구에서 분구했다.
연산동과 거제동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다.
이날 연제구의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 성지를 보고 나니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다.
아득한 역사까지 품은 이름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조선의 천문학 기술을 보여 주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라는 것도 처음 만났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다. 구 해설사가 만 원권 지폐 뒷면에 나오는 자격루와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여 줬다. 과학은 우리 호주머니 속에도 있었다. 부산시과학교육원에서는 별 관측과 함께 별자리에 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학생들 현장학습에 많이 이용된단다. 부산에 오래 살면서도 여태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노래를 부르며 알콩달콩 데이트하기에도 좋겠다.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내부까지 다 둘러보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발걸음을 옮겼다.

#01

부산에도 첨성대가 있다

● 부산 연제구 부산동암학교에서 모여 바로 위쪽의 부산시과학교육원으로 향했다. 부산에도 첨성대가 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었다. 부산시과학교육원 정원에는 국보 31호 첨성대를 원형대로 만든 첨성대가 있었다. 이날 하루 해설사를 맡은 구은주 씨의 "급하게 자녀의 현장 학습 자료가 필요하면 여기서 인증샷 찍어서 내시면 됩니다"라는 말에 웃음보가 터졌다. 첨성대 옆에는 물시계, 자격루(自擊漏)가 보인다. 관복을 입은 사람 크기 인형 세 명이 자격루를 지키고 있다. 물이 흘러넘치면 쇠구슬이 떨어지고 동력이 전해져 나무로 된 인형 3구가 종 · 북 · 징을 쳐서 시보장치를 움직였단다.

#02

배산, 옛날에는 어땠을까

● 일행은 이제 배산으로 올라선다. 술잔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생겨 배산(盃山)이다. 꽤 가파른 초입을 지나 극락사에 도착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절 마당을 채우고 있는 작은 절이다. 극락사에는 다른 사찰에서 보기 힘든 산제당(山祭堂)이 남아 있다. 섣달 그믐에는 지금도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쭉쭉 위로 뻗지 못하고 굽은 소나무 10여 그루가 산제당을 호위하듯이 둘러싸고 있다.

이 날은 일반 참가자 자격으로 참가한 단골 해설사 이미숙 씨가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을 실감하시겠죠. 공부 못 하는 자녀라고 구박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 극락사에는 챙겨 볼 것이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범종이다. 범종 아래쪽 땅바닥에 옹기를 파묻어 움통을 만들어 놓은 점이 특이하다.

●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다가 배산 중턱의 정자 회영정(會永亭)에서 잠시 숨을 돌렸다. 정자 옆에는 배산성지 우물터가 보인다. 배산성지는 고대 거칠산국의 유적지로 추정된다. 배산성지는 그동안 흙으로 만들어진 토성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연제구가 시굴조사를 한 결과 돌로 만들어진 석성 터가 처음으로 발견되어 화제가 되었다. 연제구청 측은 "큰 우물 터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성 내부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이 일대가 주 생활권역이었던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마침 답사팀을 살짝 따라온 연제구 송태문 문화관광계장이 나섰다. 송 계장은 "우리 역사에는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연제구는 숨겨져 있는 우리 역사를 찾아내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도 더 잘 다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중턱에만 서도 복천박물관, 복천동 고분군, 연산동 고분군까지 내려다보인다. 과거에 여기는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을까.

평지가 나타났다 했더니 여기저기 오래된 무덤이 보인다. 무덤 양쪽에는 기둥, 바로 망주석(望柱石)이 서 있다. 망주석은 묘에 설치하는 석물 중 가장 기원이 오래된 것이다. 망주석에는 한 쌍의 다람쥐가 새겨져 있다. 동쪽 다람쥐는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오는 형태다. 망주석이 어느 시기부터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단다.

#03

도심 한복판에서 만난 고분군

●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연제구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배산 하산길에 만난 연산동 고분군이었다. 젖무덤 같은 곡선의 고분군이 시내 한복판에 있었다니 놀랍다. 삼국시대에 부산지역을 다스린 지배자들이 묻힌 고분군이란다. 고분군은 큰 봉분을 가진 18개의 무덤과 능선 경사면에 1천기 이상의 크고 작은 무덤으로 이루어졌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많은 주민이 일출을 보기 위해 배산성지에 모여든단다. 내년 새해 일출은 여기서 보면 좋겠다.

혹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무전기 없이도 들리지 않을까.

● 이날 마지막 유적은 이섭교비(利涉橋碑)다. 이섭교는 동래구 수안동과 연제구 연산동 사이에 있는 수영천에 놓았던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 돌다리였다. 동래부사가 좌수영 수군 기지로 갈 때 이섭교를 거쳐 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었단다. 이섭교비에는 동래 주민이 계를 해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다리를 세웠단다. 지금은 돌다리는 사라지고 비석만 남았다. 부산지방의 기념비 가운데 가장 큰 비석에 속한다. 사람들이 힘을 합해 세운 이섭교라는 다리의 이름이 참 좋다.

이날의 피날레는 온천천시민공원에서의 합동 공연이었다. 연주는 한국음악연구소 '바림'과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를 하는 더굿커뮤니케이션이 맡았다. 사회적기업 두 팀이 합동으로 이선희의 '인연'을 연주했다. "이생에 못한 사랑, 이생에 못한 인연, 먼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우리 주변에 살았던 옛 사람들과의 오랜 인연을 만나는 '속속들이 부산 투어'가 좋다.

Part 14

영도구

흰여울길

영도다리(현인동상) ···› 옛 도선장 ···›
깡깡이 길 ···› 용신당 ···› 옛 영도전차 종점 ···›
최초 조선소(다나까 조선소) ···› 흰여울 문화마을

부산 속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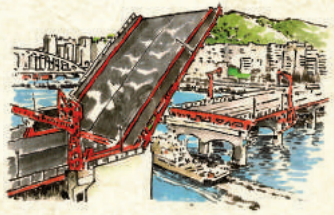
영도구

흰여울길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영도는 전체가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은 절경으로 어디선가 신선이 나타날 것 같은 섬으로, 태종대, 영도대교, 절영해안산책로, 봉래산, 아치섬, 동삼동 패총, 감지해변 산책로 등 영도 8경이 유명하다. 영도는 신석기 시대의 동삼동패총이 있는 곳으로 부산 지방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으로 추정되며, 또한 피란민, 선원이 많이 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첨단 해양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코스약식설명

1.영도다리(현인동상 앞) — (260m, 도보 5분) — 2.옛 도선장 — (570m, 도보 12분) — 3.깡깡이 길 — (750m, 도보 15분) — 4.용신당 — (600m, 도보 12분) — 5.옛 영도전차 종점 — (200m, 도보 4분) — 6.최초 조선소(다나까 조선소) — (1,500m, 도보 30분) — 7.흰여울문화마을



1. 영도다리(현인동상 앞)

부산 중구와 영도구를 연결한 길이 214.63m, 너비 18.3m, 높이 7.2m이며, 일제강점기인 1932년 4월 20일 착공되어 1934년 11월 23일 준공됨. 부산시청 남쪽에서 영도의 북서단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연륙교이자 유일한 일엽식 도개교로서 일제가 대륙 침략을 위한 보급 및 수송로 구축의 일환으로 건설. 처음 명칭은 부산대교였으나, 부산 개항 100주년을 맞아 착공한 부산대교가 준공한 1982년 2월에 영도대교로 개칭됨.

2. 옛 도선장

영도다리가 생기기 전 영도의 도선은 내륙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교통로로 개항시작과 더불어 영도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영도와 육지를 이용하는 뱃길이 더욱 필요하게 됨. 육지와 영도 사이의 도선은 두 가지 노선으로 운항되었는데, 현재 광복동 롯데백화점 뒤쪽에서 영도 봉래동의 부산대교가 시작되는 지점인 봉래동 나룻터 사이를 운항하는 노선과 자갈치에서 영도대교동 아파트 앞 선창사이를 운항하는 두 노선임. 1934년 영도다리가 개통되면서 육지와 봉래동 나루터 사이의 도선운항은 중지되고 자갈치와 대교동 사이의 도선운항만 남게 됨.

3. 깡깡이 길

70년대 당시에 조선되는 새 배는 없었고, 영도에서는 선박 수리가 주요 업종이었으므로 '깡깡이 아지매'들이 많았음. '깡깡이 아지매'는 처음에는 작은 배부터 시작해 녹슨 것을 제거했음. 그들 중에는 영도 뿐 아니라 밖에서 거주하며 9시~6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았음. 하지만 슬프게도 '깡깡이 아지매'들 중에는 나중에 난청이 된 분이 많고, 밀폐된 공간에서 독한 페인트 칠하다 질식해 죽은 사람도 많았음.

4. 용신당

영도다리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사고현장인 다릿목에 떠돌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영도 주민들은 그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갯가에 용신당을 세우고 고사를 지냄. 이 용신당은 수중고혼이 된 뱃사람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단이 되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주들이 안전항해와 만선풍어를 빌 때 용왕제를 올리는 장소

5. 옛 영도전차 종점

일제시대의 교통수단으로는 자동차와 인력거, 객마차가 등장하였고, 쇠수레라 불리는 열차와 전차가 도입. 1884년 새로운 우편제도와 함께 최초 우표가 발행 후, 10월 우정국을 설립하고, 신속한 연락을 위해 서울-부산 간 전신시설을 설치. 부산 우편국 앞에서 대청동 · 보수동 · 부성교(현 토성교)를 지나 오늘날 한전 앞에 이르는 시내선은 1916년 9월 개통되어 같은 달 22일부터 영업이 개시됨. 영도다리를 건너온 전차가 머무는 종점 위치는 남항동 2가 244-1번지로, 1991년 영도 전차종점 자리에 전차와 함께 한 옛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그곳에 '영도 전차 종점기념비'를 세웠음.

6. 최초 조선소(다나까 조선소)

1887년 영도 영선동(현 남항동, 대평초등학교)에 세워진 다나까 조선공장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인본인 조선업체 중 가장 먼저 설립 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대평초등학교의 근대 조선산업발상기념비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공업의 요람이며 해운입국의 모태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선 실업인 단체인 반류회는 1989년 11월 영도구 남항동 2가의 대평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 발상 유적지'라는 기념비를 세움.

7. 흰여울문화마을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은 부산항 남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명당.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변호인'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등을 촬영한 장소로 외지인들에게 유명해짐. 높다란 절벽 위 넓게 펼친 대양을 앞에 두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도로에서 골목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골목 끝이 모두 푸른빛의 바다. 흰여울 마을은 '바다'와 '경사지마을'이라는 부산의 대표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며, 최근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방 등이 하나 둘 자리를 잡고 있음.

영도는 말과 인연이 깊다.
말 사육장으로 유명해 목도(牧島)라 불리기도 했다.
영도에서 사육된 명마는 빨리 달려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고 해서
절영도(絕影島)라고 부르다, 영도가 되었다.
지금도 영도에는 대형 음식점 '목장원'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
말과의 인연은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01

영도다리와 깡깡이 길의 추억 속으로

● 영도에는 삼신할머니가 있어서 영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야기, 부산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다. 왕건과 견훤이 등장하는 영도 이야기도 있다. 후백제의 견훤은 고려 태조 왕건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절영마 한 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술사(術士)가 절영마를 주면 후백제가 망한다고 하는 게 아닌가. 당황한 견훤이 스타일 구겨가며 돌려주기를 청했다. 왕건은 웃으며 말을 돌려주지만 역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부속들' 참가자들이 영도다리를 건너 현인 동상 앞에 모였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수 현인은 영도구 출신이다. 그가 부른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는 힘차면서도 구슬프다. "일가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이 내 몸은 국제 시장 장사치기다/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달만 외로이 떴다."

영도다리는 1934년 들고 내리는 도개교로 등장했다. 하지만 1966년 도개 기능이 중단되며 이후 47년 동안 못 움직였다. 2013년 영도다리는 다시 도개교로 복원되었으니 역사는 정말 돌고 도는 것일까.

한국전쟁이 나고 부산으로 피란 온 실향민들이 만나는 장소로 정한 곳이 영도다리였다. 헤어진 가족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건설 건물 밑으로 점집이 생겨나 점바치 골목이 되었다.

우리의 첫 목적지인 대평동 옛 도선장으로 향했다.

● 통선(通船), 즉 통통배와 나룻배를 타던 도선장이 여기였다. 예전 인터뷰를 찾아보니 50년 경력 오복호 정영백 선장은 "옛날에는 통선에서 도개를 보면서, 들고 온 오디오 기기로 한 곡조 뽑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통선이 운항을 멈추며 낭만도 사라진 것 같아 아쉽기만 하다.

조선소 앞에는 작업 중인 배들이 많이 묶여 있다. 어디선가 신선한(?) 페인트칠하는 냄새도 나는 것 같다. 대평동 2가 일대는 '깡깡이길'로 불린다.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서 그렇다. 선박을 새로 단장할 때는 먼저 배에 붙은 녹을 망치로 두들겨 떼어내야 한다. 이때 나는 망치 소리가 '깡깡, 깡깡' 한다. 1970년대에 영도의 '깡깡이 아지매'는 '아시바(비계)'를 타고 하루 종일 '깡깡망치'를 두드렸단다. 이들 중에는 나중에 난청이 된 사람이 많았다.

고달픈 삶을 망치로 두드리며 열심히 살아간 분들에게서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게된다.

#02

조선 발상지에서 한국 경제 기원

● 깡깡이길이 끝나고 남항서로를 따라 내려가자 외딴 건물 용신당이 나타난다. 용신당 부근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용신당은 영도 다리를 만들 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었단다. 일본의 '할매신'을 모신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용신당에서 바다쪽을 바라보니 멀리는 송도, 바로 앞에는 홍등대가 보인다. 배가 들어올 때 홍등대의 불빛이 바다를 밝힌단다.

외국의 도시를 다니다 보면 늘 부러운 게 전차다. 부산에 지금까지 전차가 남아 있었다면 어떨까 가끔 상상해본다. 다음 순서로 영도다리를 따라 옛 부산시청에서 지금의 남항동 시장까지 운항되었던 전차의 흔적을 만나러 갔다. 1935년에 전차길이 만들어지며 영도까지 전차가 들어왔다. 전차종점 기념비 앞에서 그 시절을 상상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 영도는 또한 한국 조선산업의 발상지다. 대평초등학교 교정에는 그 흔적인 '한국근대조선발상유적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곳이 예전에 해안이었다는 말이다.

여기에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다. '신라의 해상왕 장보고, 고려의 최무선, 조선의 이순신을 잇는 조선(造船) 전통이 영도에서 비로소 꽃이 피었다'는 내용이다. 잠깐 근대사 공부 시간. 1887년 최초의 근대식 목선 조선소인 '다나카 조선소'가 이곳 대풍포 일대에 세워진다. 그러부터 50년 후인 1937년에는 국내 최초의 철강 조선소인 조선중공업(한진중공업)이 일본인에 의해 건립되면서 영도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중심이 된다. 전국 어디에서도 못 구하는 선박 부품이라도 영도에 오면 다 구한단다.

● 이날 마지막 목적지는 요즘 뜨고 있는 흰여울마을이다. 봉래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빠르게 바다로 굽이쳐 내리는 모습이 마치 흰 거품이 내려가는 듯 해서 먼저 흰여울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최근에는 영화 촬영지로 각광을 받으며 몇 년 전부터 흰여울문화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도구청에서는 빈집을 예술공방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작가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의 촬영지도 바로 여기다.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잖아! 할께요! 변호인하겠습니다!" 벽에 붙은 송강호의 대사가 생생하게 살아나서 귀에 꽂힌다. 흰여울마을 동네 주민 한 분이 해설에 나섰다. "우리 마을의 대표선수는 자연이다. 맑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보인다. 시집 왔을 때와 지금 이 마을은 변한 게 별로 없다. 다른 벽화마을처럼 안 변했으면 좋겠다. 상업화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흰여울마을에서 보이는 영도 앞 바다는 배가 많이 떠있는 묘박지이다. 배들이 꼼짝않고 대기하고 있다. 배가 많이 떠 있을수록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증거란다. 조선 산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깡깡이 아지매의 투지로 무장해 한국 경제호가 다시 순항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영도 답사를 마쳤다.

Part 15

중구

근대역사길

40계단 ··· 또따또가 ··· 백년어서원 ···
화국반점 ··· 백산기념관 ··· 청자빌딩 ···
일제 방공호 ··· 관수가 ··· 고갈비골목 ···
청풍장, 소화장(부산최초아프트)

부산 속 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중구

근대역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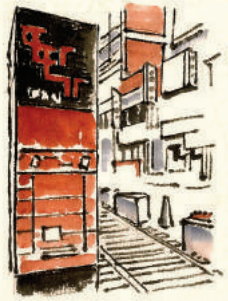
1998년 부산 시청 이전후 국내최고 유통 및 숙박시설이 들어서며 세계적 쇼핑가로 탈바꿈하고 있다. 부산의 가장 작은 자치구 이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가 숨 쉬는 한국 근 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남포동 BIFF광장과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먹자골목 등 테마 골목과 자갈치시장의 현대화 추진으로 해양친수공간과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산을 대표하고 있다.

코스약식설명

1.40계단 (60m, 도보 1분) 2.또따또가 (140m, 도보 2분) 3.백년어서원 (140m, 도보 2분) 4.화국반점 (210m, 도보 3분) 5.백산기념관 (160m, 도보 2분) 6.청자빌딩 (300m, 도보 6분)

1. 40계단

1950년 6 · 25 피난시절 교통 · 행정의 중심지였던 부산 중구에 위치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그 주위에 판잣집을 짓고 밀집해서 살았었고, 바로 앞 부두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파는 장터이자 피난 중 헤어진 가족들의 상봉 장소로 유명한 피난살이의 애환을 상징하던 곳. 1951년 당시 영주동뒷산, 동광동, 보수동 일대에 흩어져 살았던 10만이 넘는 피난민들에게 가장 친근한 장소.



2. 또따또가

또따또가는 원도심의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또한 예술인들에게 작업 공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중구 중앙동과 동광동의 40계단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작업실이 분포, 문학, 미술, 음악 등 각 분야 지역 예술인 수백 명이 입주하여 활동하는 창작공간을 비롯, 다양한 문화공간이 어우러져 구성. 또따또가는 관용,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똘레랑스(Tolerance)'에서 '또'를 가져오고 '따'로 활동하지만 '또' 같이 활동한다는 의미와, 거리나 지역을 나타내는 한자 '가(街)'를 합성하여 우리말로 표현한 것.

3. 백년어서원

백년어(百年魚)는 앞으로 백 년을 헤엄쳐 갈, 백 마리의 나무 물고기를 뜻함. 김수우 시인이 시작한 50㎡의 인문학 북 카페 백년어서원은 원도심 오피스빌딩 뒤편 동광동 인쇄골목 2층 위치. 1층은 상상 공간 아르케, 2층은 인문학 북 카페 백년어서원으로 운영. 둘 다 책 읽기 좋은 카페로, 백년어서원은 각종 인문학 서적을 비치하고 있어 책을 읽거나 구입할 수 있고,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어 세미나와 인문학 강좌장소로 활용. 다양한 모임이나 프리랜서들의 작업 공간으로 쓰이고 있으며, 간단한 아트 상품 및 차도 즐길 수 있음.

4. 화국반점

60년이상 된 부산의 대표적인 중화요리 전문점. 화교 윤작옥(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민)은 6 · 25 전쟁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올 때 가져온 자본금으로 1951년 부평동 1가 건물에 옥생관을 개업하고 한국인 직원들을 고용하여 중화요리를 만들기 시작.

5. 백산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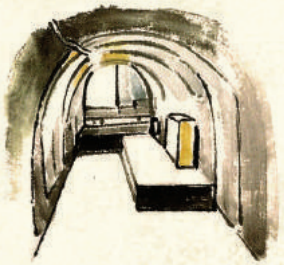
백산 안희제 선생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으로 이 기념관이 있는 자리에 백산상회를 설립 운영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 현재 기념관은 1995년 8월 15일 개관하여 부산, 경남지역 독립운동의 교육장이 되고 있으며 전시장에는 선생의 유품과 당시 구국운동 자료 등 80여점이 전시되고 있음. 지상에는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지하 1층에는 백산 안희제 선생과 관련된 유물 및 독립운동관련 자료 전시와 지하 2층에는 기획전시실로 활용하고 있음.

6. 청자빌딩

일제 강점기때 금융회사들이 모여 있던 동광동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근대건축물 청자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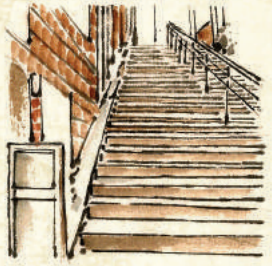
(110m, 도보 3분) (160m, 도보 5분) (630m, 도보 13분)

7.일제 방공호 → 8.관수가 → 9.고갈비골목 → 10.청풍장, 소화장(부산최초아파트)



7. 일제 방공호

현재 확인된 땅굴 위치는 조선 시대 초량왜관의 책임자가 머물렀던 관수가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부산부청이 있던 부지로, 일제시대 방공호 용도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8. 관수가

초량왜관의 최고 책임자 공관. 관수는 외교교섭의 진행과정을 파악하여 본국(대마도)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관수일기로 남김. 관수가는 개항후 부산부청, 일본영사관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입구에는 폭 4m 정도의 37계단이 남아있음.

9. 고갈비골목

고갈비 골목은 용두산공원 바로 밑 옛 미화당백화점 뒤편에 위치. 한창 때는 고갈비집이 12곳이나 됐지만 지금은 '남마담'과 '할매집' 2곳만 남아있음.

10. 청풍장, 소화장(부산최초아파트)

철근 사용을 않고 자갈모래, 시멘트로만 지어진 부산 최초아파트. 청풍장은 1941년, 소화장은 1944년 각각 지어짐.

중구 투어가 폭염 속에서 열렸다.
이 무더위에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인 백구당(白鳩堂) 앞에
5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백구(白鳩)'는 '흰 갈매기'라고 했다.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산 갈매기들,
중구로 날아올랐다.

#01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 백구당 옆 40계단의 주소는 부산 중구 동광동 5가다. 하지만 원래 40계단은 지금 위치에서 25m 떨어진 자리에 있었단다. 한국전쟁 당시 40계단 주변은 피난민들이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장터이자, 헤어진 가족과 상봉하는 장소였다. 지난 1일에는 양정모 씨가 한국 올림픽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지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여기서 열렸다. 40계단 일대는 그가 체력 훈련을 하며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운 곳이었다. 중구청은 40계단에서 그의 생가터가 있는 300여m를 '양정모 거리'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이란다.

● 인쇄소가 밀집한 인쇄 골목을 지나쳐오다 '인쇄 골목 사전'이란 작품을 만났다. 1960년부터 시작된 인쇄 골목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만든 설치미술작품. 하지만 오토바이가 떡하니 가로막은 모습이 예술과 문화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인쇄골목사전 앞에서 이날 해설사로 데뷔한 권미분 씨의 강의 같은 해설이 시작됐다. "'또따또가'는 원도심의 창작공간입니다. 중구 일대는 시청 이전으로 공동화가 진행되며 빈 점포나 사무실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부터 40계단 주변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모아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킨 결과 다시 중구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인문학 강좌가 활발하게 열리는 백년어서원을 지나갔다. 앞으로 백 년을 헤엄쳐 갈 백 마리의 나무 물고기가 백년어(百年魚)다.

● 대청로를 건너 화국반점 앞에 도착했다. 간짜장 맛있기로는 소문이 난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이다. 권 해설사는 "부산작가회의의 전신인 5 · 7문학협의회가 1985년 5월 7일 요산 선생을 비롯한 부산의 문인 39명이 여기서 모여 결성됐다"고 설명한다. 잠깐 최영철 시인의 말을 빌리면 이날 요산은 독립군 대장 같았고, 어둑한 화국반점 2층은 임시정부 비밀 아지트 같았단다.

투어에 처음으로 참가한 중국 출신 리수매 씨가 화국반점에 달린 세로 간판을 보고 한 마디 덧붙인다. "중국에서 세로 간판은 100년 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중국집에 가려면 이 세로 간판이 달린 집에 가면 됩니다." 유용한 팁을 배웠다.

● 용두산 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백산기념관이다. 광복 71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백산기념관에는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플래카드가 걸렸다. 안희제 선생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졌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하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백산기념관 바로 옆에는 1918년에 세워진 청자빌딩이다. 부산지역 최초의 금융기관 건물로 옛 한성은행 부산지점이 입주했던 곳이다. 한때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해 18억5000만 원을 들여 매입했다. 생활문화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니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 기대가 된다.

#02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 서다

● 부산 중구에 땅굴이 있다? 이 믿기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이었다. 동광동 아로마호텔 축대벽에 땅굴 입구가 있었다. 두 번째 땅굴은 반원 형태의 통로로 높이는 2m, 폭은 1.5m쯤 되었다. 입구에서 10m가량 들어가니 양쪽으로 갈라져 2m 정도 더 나아갈 수 있다. 먼저 땅굴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막상 들어가 보니 이유를 알게 되었다. 더운 날씨에 땅 속은 서늘해서 좋았다. 일제시대에 방공호 용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땅굴이다.

권 해설사는 "중구에만 땅굴이 6곳이 발견되어 올해 처음으로 개방을 했다. 벽 반대쪽으로 자갈치나 초량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땅굴의 용도와 규모를 조사해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정말 부산 속을 들여다본 날이었다. 이 땅굴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궁금해졌다.

● 시간 터널을 통해 좀 더 과거로 들어왔다. 투어 참가자들은 초량왜관 최고 책임자의 공관인 관수가(館守家)의 흔적인 37계단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관수는 외교교섭 진행 과정을 파악해 본국인 대마도에 보고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관수일기로 남겼다. 관수가는 개항 후 부산부청이나 일본영사관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초량 왜관 안에서 제일 큰 건물이 관수가였다. 규모가 얼마나 되었을까? 담장으로 둘러싸인 초량왜관 부지는 무려 33만 579㎡(10만 평)에 달했다.

● 다음으로 찾은 곳이 옛 미화당백화점 뒤쪽의 고갈비 골목이다. 1980년대만 해도 고갈비집 12개가 성업했다지만 지금은 할매집과 남마담 2곳만이 남았다.
지금 부산사람들은 고갈비가 고등어구이인줄 다 안다. 하지만 예전에는 선배들이 고갈비 사준다고 하면 갈비 먹으러 가는줄 알고 따라나섰다 실망한 경우도 있었다. 고갈비집에서 별칭도 많았다. 소주를 '이순신 꼬냑', 막걸리는 '야구르트'로 불렀다. 깍두기는 '못잊어'라고 했다니 참 낭만적이기도 하다.

● 마지막 코스가 벽돌로 만들어진 부산 최초의 아파트 청풍장이다. 1941년에 지어져 지금은 너무 오래되고 낡아 보인다. 당시에는 집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최신식 아파트였다.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다다미방이 잘 보존된 집도 있단다.

재개발이냐 보존이냐의 갈림길에 선 청풍장,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하다.

Part 16

해운대구

온천길

최치원 유적지 ··· 해운대 석각 ··· 인어상 ···
해운대온천 ··· 옛 이병철별장 ··· 청풍장 ···
해운대 암소갈비(기왓집) ··· 해운대구청 연못 ···
해운대 온천센터 ··· 솔밭예술인마을

부산 속 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해운대구

온천길

해운대라는 이름은 신라 말의 석학 고운 최치원 선생의 자 해운에서 따온 것으로 한반도의 남단인 부산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해운대는 해발 634m의 장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1994년 8월 31일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 전시회, 컨벤션 행사가 열리는 국제도시 부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가 열리는 부산에서 가고 싶은 대표적인 관광지가 많은 곳이다.

코스약식설명

1.최치원 유적지 (70m, 도보 1분) 2.해운대 석각 (200m, 도보 3분) 3.인어상 (1,300m, 도보 16분) 4.해운대온천 (170m, 도보 3분) 5.옛 이병철별장 (100m, 도보 2분) 6.청풍장 (260m, 도보 4분)

1. 최치원 유적지

최치원은 신라헌안왕 첫해 서기 857년 경주 남천가에서 태어남. 12세에 중국 당나라에 유학. 17년동안 머물다가 885년 귀국. 40여세 장년 나이로 관직을 버리고 소요자방(은거). 그의 발자취가 머물렀다고 전하는 곳은 경주 남산, 강주 빙산, 합천 청량사, 지리산 쌍계사, 그리고 동래 해운대 등이 있음.

2. 해운대 석각

신라말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문창후 고운 최치원선생이 가야산 입산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주변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 대를 보아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주변은 소요하다가 선생의 자이기도 한 해운을 암석에 「해운대(海雲臺)」란 세글자로 음각하였다는 데서 이곳의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함. 현재 동백섬 남쪽 끝 부분 바다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룬 해안의 바위 위에 음각되어 있으며, 수많은 세월동안 풍우에 씻겨 지금은 세글자 중 「운(雲)」자가 많이 마모된 상태로 남아있음.

3. 인어상

동백섬 해안가에 자리해 있는 인어상은 1974년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나, 1987년 태풍 셀마호에 유실되어 현재 상체 부분만이 부산박물관에 보관중이며 1989년 높이 2.5m, 무게 4톤의 청동좌상 인어상을 새로 제작하여 설치함. 바다건너 인어나라 미란다국에서 무궁나라 은혜왕에게 시집온 황옥공주가 늘 고국을 잊지못해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황옥에 비친 고국을 보며 그립고 슬픈 마음을 달랬다는 전설이 전해짐.

4. 해운대 온천

수온 45~62 ℃. pH 7.7. 통일신라의 진성여왕도 애용했다고 하는 오래된 온천.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부활, 공중욕장도 생김. 8 · 15광복 후 이 일대가 교통이 편리해짐에 따라 해수욕장과 함께 급속히 도시화하여 지금은 국내의 대표적 관광휴양지. 수질은 무색 투명한 알칼리성 단순식염천으로 라듐 성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으며, 위장병 · 부인병 · 피부병 등에 특효가 있음.

5. 옛 이병철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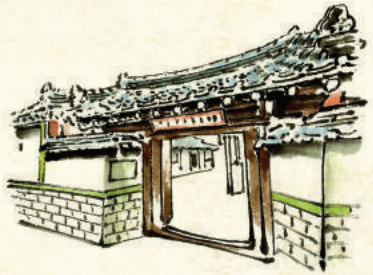
예전 이병철회장의 별장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르노삼성차 건물이 들어섬.

6. 청풍장

'since 1939, 70년 자가 온천수'라고 적힌 '청풍장' 목욕탕

(150m, 도보 4분) (80m, 도보 1분) (480m, 도보 5분)

7.해운대 암소갈비(기왓집) 8.해운대구청 연못 9.해운대 온천센터 10.솔밭예술인마을



7. 해운대 암소갈비(기왓집)

1964년 개업해 52년째 2대를 이어 영업중인 이곳은 직접 칼 집을 내어 만드는 생갈비. 이틀 동안 숙성한 양념갈비가 대표메뉴. 한옥에서 운치 있게 소갈비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함.

8. 해운대구청 연못

해운대구청은 주민들이 해송과 연못이 어우러진 정원과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장을 허물고 담장이 있던 곳에는 해운대온천을 알리는 온천족욕장과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공연하는 야외무대로 꾸몄음.

9. 해운대 온천센터

우리나라 유일의 임해 온천으로 해수욕과 온천을 겸할 수 있는 90년 전통의 할매탕에서 부산 해운대 온천센터로 전통을 이어오는 온천임.

10. 솔밭예술인마을

해운대구는 도심에서 보기 어려운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고 2013년 쇼핑몰 스펀지 뒤편 낡은 슬레이트집이 몰려있던 옛 솔밭마을 부지에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이며,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공간을 마련. 소나무 원형을 그대로 살린 면적 393㎡의 소공원을 조성하고 예술가의 창작 · 전시공간을 소나무를 사이에 두고 길이 100m, 폭 4m와 6m의 양방향 도로도 만들었음. 6개 공방에서 10여명의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하고 있음.

해운대구 편이 열렸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왠지 교포 같은(?) 차림과 느낌의 중년 신사가 눈에 띄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참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그분은 해운대에 살아 자주 산책하는 코스이지만 해운대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
참가했다고 했다. 겉만 보고 다니면 평생 속속들이 모른다.
우리는 해운대를 얼마만큼 아는 걸까.

#01

최치원의 흔적과 인어상

● 동백꽃이 남아 있고, 겹벚꽃은 만발한 지금 동백섬에 오르는 사람은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이날 강풍과 호우도 잘 참고 기다리다 저녁이 되어 들이닥쳤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앞의 신상(新像) 인어상이 장도를 축하하는 나팔을 불어준다. "이름이 뭐예요?" 플라스틱 아일랜드에서 온 코딜리아 페트 양이다.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2배가 넘는 1인당 연간 108㎏이나 된다. 고래나 거북이 심지어 새우까지도 그걸 먹고 탈이 나자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사로 여기까지 왔단다(지난해 8월에 세워진 작품).

고운 최치원 선생이 알았으면 정말 혀를 찰 일이다. 선생은 당나라에 유학 가 25세 나이에 '토황소격문'을 지어 중원의 문단을 흔든 문단의 대선배님이다. 지금 중국에서 거센 한류의 원조쯤 되는 분이라고 할까. 하지만 선생도 신라의 기우는 국운을 구할 길은 없었다. 마지막에는 가야산 합천으로 들어가 갓과 신을 숲 속에 남긴 채 사라졌단다. 하지만 선생은 가야산 입산길에 이곳을 지나다가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자 그냥 갈 수가 없었다. 여기다 대(臺)를 쌓고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음미하면서 노셨단다. 자신의 자(字)인 '해운(海雲)'을 동백섬 남쪽 바위에 '海雲臺'라고 음각한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해운대 석각에서 '海雲臺'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雲'자가 마모되어 흐릿하게 보인다.

석각에 새겨진 해운대란 글자가 선생의 자필이라고 단정할 확실한 기록은 없다. 마침 '속속들' 투어 다음날인 17일이 최치원 선생 춘향례 날이라 더 물어보고 싶어졌다. 동백섬은 모양이 다리미를 닮았다고 해서 예전에는 '다리미 섬'이라고도 불렸단다.

● 해안 산책로를 따라 걷다 이번엔 안면이 익은 인어상인 황옥공주상을 만났다. 황옥공주는 인어 나라 미란다국에서 시집왔다.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황옥(黃玉)에 비친 고국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단다. 황옥공주님은 몸매가 참 글래머라는 생각을 할 때였다. '속속들'의 분위기 메이커인 동명대 이정실 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든다. "황옥공주는 몸매가 가냘프지 않고 팔뚝도 근육질이죠. 전 세계 최초의 유부녀 인어상, 아줌마여서 그렇습니다."꽃섬 동백섬에 웃음꽃이 더해진다.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내려선다. 18일까지 부산국제즉흥춤축제가 열리고 있다. 해운대에 문화와 예술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이겠다. 오늘의 해설사 최동락 씨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금 팔레드시즈 자리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묵었던 부산 최초의 특급호텔인 극동호텔이 있었습니다. 달맞이언덕 AID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원래 골프장이 있었고요. 박 대통령이 아침부터 일 안 하고 골프 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고 골프장을 없앴다고 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달맞이언덕에 골프장이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02

해운대에 '온천'이 있었네

● 예전에 일본 벳푸의 한 호텔 옥상 노천탕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일몰과 일출을 맞을 때의 감동은 강렬했다. 그때도 곧이어 해운대를 생각했다. 해운대에는 신라의 진성여왕 때부터 애용해온 온천이 있다. 이런 관광자원을 우리는 왜 제대로 못 살리는 것일까.

해운대 양탕장(揚湯場) 앞에 모여 설명을 들었다. 온천수는 시영 양탕장에서 뽑아 올려 파이프라인으로 관광호텔이나 공중탕에 공급한다. 자체적으로 탕원(湯源)을 개발해 사용하는 업소는 해운대에 4곳이 있다.

● 일행은 'since 1939, 70년 자가 온천수'라고 적힌 '청풍장' 목욕탕과 1964년에 문을 연 기와집인 '해운대 암소갈비'를 지났다. 해운대 구청 연못은 1935년에 해운대온천합자회사 대온천 풀이 들어선 곳이란다. 1935년에 문을 열었다는 '할매탕'은 최근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마쳤다. 피부에 좋다는 할매탕, 다음에 꼭 한 번 들어가겠다고 다짐을 한다. 바로 앞 르노삼성차 건물이 예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 별장이 있던 자리다. 이 회장은 자주 오지는 않았고, 비운의 장남 이맹희씨가 쫓겨난 뒤 머무르며 울분을 삭이던 곳이란다. 해운대에는 고층 건물만 많은 줄 알았다. '올드 앤 뉴', 해운대의 치명적인 매력이었다.

#03

숨은 매력 솔밭예술마을

● "어머! 해운대에 이런 곳도 있었네요." 참가자 대부분이 부산사람인데도 솔밭예술마을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다. 쇼핑몰 '스펀지' 뒤편 낡은 슬레이트집이 몰려 있던 곳이 옛 솔밭마을이었다. 2013년 6동의 컨테이너 건물에 10여 명의 예술가가 입주하며 솔밭예술마을로 변신했다. 벽에 붙은 금연 표지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예전에 불량 청소년이 몰려 담배 피우던 곳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였다. 터줏대감인 200~300년 된 소나무 20여 그루가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소나무가 슬레이트 지붕을 뚫고 뻗어 있거나 보일러실을 통과하는 모습이라 눈길을 끈다. 인근에 아파트 허가가 난 후 소나무는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장현미 작가는 "주민들이 소나무 지키기에 나서고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 공방촌이 되었다"고 말한다. 사람과 나무의 공생이다.

거북이 형상 조형물이 자주 보인다. 옛날에 여기에 거북이가 많아서 지명이 구남로란다. 화려한 해운대에서 소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솔밭예술마을은 세계적 관광지 해운대의 쉼표 같은 곳이 아닐까. 이날 마지막 코스인 한 국밥집에서는 국밥집 사상 최초로 멋진 바이올린 연주가 펼쳐 졌다.

독일에서 거주하는 이승연 씨는 부산에 왔다가 친구의 권유로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해운대에 온천탕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흔한 투어가 아니었고, 무겁지 않게 재미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 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

발간일 2016년 12월 26일
발행처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사)서비스기업경영포럼

기획 고영학
글 이정실 · 박종호
사진 고영학 · 반영선
진행 박은애 · 김영하
디자인 보다
일러스트 유환영
인쇄 K프린텍

펴낸곳 보다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창업지원센터 319호
전화 010-5258-5255

저자 및 출판사의 허락없이 이 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 전재 · 발췌 할 수 없습니다.

〈부산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에 협조해주신 부산광역시 각 구청 관계자분들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영도구청 문화체육과 임영숙 과장님, 부산진구청 관광위생과 이성무 계장님, 남구청 문화체육과 김웅민 홍보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속들여다보기

속속들이 부산투어